(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01. 1981년12월2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December 2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다산가정에 중과세

한국, 인구조절에 강경책

상속법·가족관계법 개정도 검토

(서울=18일 연합) 한국정부는 인구증가 조절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환으로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과중한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정부 주도의 인구조절 계획은 80년 인구증가율을 1.34%로 설정 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1.57%였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시되면 인구증가율은 점차 줄어들어 2000년에는 1%, 2050년에는 0%가 된다. 전국 예상 총인구수는 90년에 4천430만, 2000년에 5천만, 2050년에 6천130만이 된다.

이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는 83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부가 주민세를 징수하고, 오직 첫번이나 두번째 아이를 낳는 직업여성들에게만 6개월 내지 1년의 유급 임신휴가를 주는등 차별정책을 실시한다.

또 3명이상 자녀를둔 근로자들은 82년부터는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액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받았다.

정부는 또 인구억제 적극책으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의 5세미만의자녀에게 보건소에서 무료 의료혜택제공, 국영아파트나 주택공입 우선권 부여등 특권을 준다.

83년부터는 자녀 3명이상 둔 공무원도 더 이상가족수당을 받지 못한다. 현재는 자녀 넷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계획의 주요 양상은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처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들을 더 바라는 한국인의 의식구조 때문에 많은가정이 원하는 수보다 많은 자녀를 가졌었다.

정부는 동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 가족법및호주상속법과 같은 가족관계법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는 앞으로 그들친정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으며, 남성근로자도 처부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다. 현재는 형제자매가 있는 기혼여성은 비록 본인이 부모를 부양해도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되어있는 기혼여성의 친정부모들도 앞으로 시부모처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는다.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이가입되었을때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장,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30개 부문의 직업분야에까지도 취업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이같은 목적으로 노동표준법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인구밀도는 385명/Sq.km로 세계 3위의 인구조밀국가이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산과 숲을 제외하면 1132명/Sq.km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된다.

조·클락에 새로운도전

지도력회의, 1명탈당선언

한명의 보수당의원이 탈당을 선언, 한동안 잠잠하던 보수당 당수 조·클락의 지도력 문제가 또 다시 재기됐다.

클락당수의 지도력 문제는 지난 연방총선직후 시끄러웠다가 지난2월 전당대회에서 재다짐을 받은후 한동안 잠잠했었다.

용감히 탈당을 선포, 무소속으로 있게된 게리·거빈(40세)의원은 의사이자 전직 검시관으로 정치바람을 잘 타지않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거빈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탈당은 7개월간의 고민끝에 취한 행동이다. 보수당이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당수에 대한 신임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에서 클락당수가 당수로 재신임을받을 경우 자신도 클락을 밀겠지만, 82년 봄에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클락이 재신임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클락당수는 이에 대해 "최근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은 캐나다전국에서 42%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므로 차기전당대회는 예정대로 83년에 있을 것이다"고 말해 82년 봄의 임시전당대회를 부인했다.

절도범 경찰에 피격

택시강탈 도주중 1명부상

15일밤 자동차 절도 용의자2명이 메트로 경찰의 추격을 받다 1명이 경찰의 총격에 부상당했다.

왼팔 상단에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노스욕 제네랄·하스피탈에 입원중이며, 안정상태에 있다.

경찰은 도난당한 Co-op 택시를 추격, 노스욕 교외에서 이들을 저지하면서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용의자중 1명은 이때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레슬리 스트리트와 세퍼드 애비뉴 근처 래스콘로드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택시운전사를 강제로 내리게 하고 문제의 택시를 절취했으며, 총격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순찰중인 경찰이 도주하는 문제의 택시를 처음 발견한 곳은 영 스트리트와 「401」하이웨이 근처.

추격받은 택시는 얼마못가서 아본데일 애비뉴 어느 민가의 앞뜰에 처박 혔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는 킹스톤 근처 피츠버그교도소를 탈옥한 전과자로 믿고 있으며, 총기를 소지한 위험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더글라스·로렌스·쉥브룩을지명 수배중이다.

백설의 계절을 만끽

본사, 2박3일의 초보자 스키강습

캐나다의 겨울은 길며, 수많은 주민들이 이 "백설의 계절"에 조인(鳥人) 처럼 은세계를 누비며 정복자의 포부를 기르며 보낸다.

특히 연휴나, 주말이면 가족끼리 또는 친지들과 삼삼 오오 어울려 눈 덮인 고지를 찾아스키를 달리고 마음껏 온백의 대자연을들이 쉬고, 무한대한 그 품에 안겨 삶의 환희를 만끽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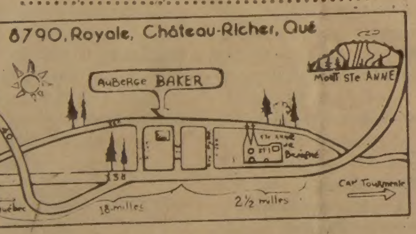
이에 본사는, 브랜돈 스포츠사와 공동주최로 이민생활의 고달픔을 잊고, 만감이 오가는 신춘 벽두에 은세계를 스키로 달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케이블로 공중을 날아 광대한 포부를 기를 기회를 제공코자, 설백 雪白)의 세계로 교민들을 초대하고 있다.

오는 1월29일(금) 하오6시30분~31일(일)하오5시 2박3일 코스로 대절버스 그레이하운드로 퀘벡주의 가장 큰 명산「새넹」산 기슭의 스키장 콘도미니움Le Plateau에 숙식하며 2일간 케이블카로 산정에 올라가 스키강습을 실시한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이론과 실제지도에 주력한다.

한편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도 계획되고 있다.

스키강습, 관광겸 캠핑성격을 띤 이번 초보자를 위한 스키강습회 는 모집정원이 35명이며 숙소및대절버스 예약등으로 증원될 수 없다. 참가비는 1인당 $180(숙식비등 포함)

참가희망자는 1월15일안으로 한국일보-토론토사 광고국이나 Brandon Sports앞으로 수표 우송, 예약하면 된다.



◇스키장 약도

참가자들이 투숙할 콘도미니움「Le Plateau」는 실내수영장, 싸우나탕, 월풀등을 자유 사용할 수 있다.

침실 사용료는 6명용 ,3 베드룸이 각자 180달러인데, 만약 독방을 원하는이는 25달러를 더 내고 2인용 1베드룸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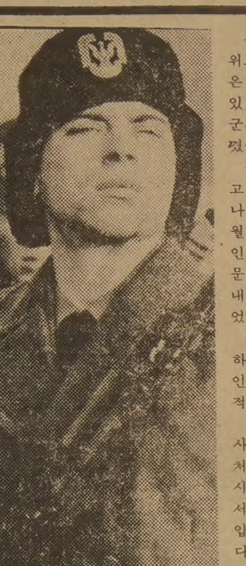
폴랜드사태

<뉴스해설>

폴랜드사태의 관건은 폴랜드군대가 얼마나 국민의 사에 반해 상부의 명령에 잘 듣나, 또 소련군이 끝내 폴랜드 사태에 개입 될것인가하는 데 촛점이 모아진다.

16일 현재까지 소련군의 개입소식은 없으나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바르샤바동맹지역중 두번째로 막강한 32만 폴랜드군이 외부세력 도움없이는「폴」전국에 서 일제 봉기가 일어날 경 우 이를 저지할 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만명 회원을 가진 솔리대리티 전국 자유노조원들은 바로 폴랜드군인들의 가족들이며 폴랜드는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시하는민족이었다. 그렇다면 만일 군대가 저항하는 민간인들에 총을 들이대야만 할 경우 군인들이 실제 발사할 수 있을까.


◇국가운명의 관건을 쥐고있는 폴랜드 군인

통치권이 국가구제 군사위로 넘어갔다 해도 권력은 야루젤스키 손에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정권을 군의 손에 넘길 필요를 느꼈을까?

공산국가에서는 당이 최고의 통치기관이다. 그러나 폴랜드 공산당은 80년8월이후 급작한 성장을 보인 솔리대리티 노조운동때문에 세력을 상실, 스스로 내부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소련이 폴랜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째 군사적인 것이요, 두번째로 경제적인 이유이다.

소련이 1956년의 헝가리사태나 68년의 체코침공때처럼 재빨리 군사개입을 실시못하는 이유는 폴랜드에서 자유정신의 물결을 억압으로만은 다스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의 배경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폴랜드 집권공산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만약 소련이 무자비한 무력침공을 시도할 경우 중요한 송유관, 전력선및 코뮤니케이션시스템이 파괴되는등 바르샤바조약 기구내 경제적 기반이 뒤흔들릴 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려한 소련의 실리적 계산때문이다.

1년여동안 수차례 당지도권을 개편토록 폴랜드에 압력을 넣어온 소련은 이제 군을 통치할 능력이 있다고 본 야루젤스키를 최고 지도[illegible] 도상에 있는 공산당대신폴랜드 군부로 하여금 폴랜드 국민을 다스리게 해서 소련군의 직접개입을 대치한 효과를 꾀한 것이다.

고위 군장성으로 이루어진 국가구재군사위는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군이 과연 어떤식으로 움직여 사태를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 되나 폴랜드국민에 싹트기 시작한 자유에의 갈망은 어느 누구도 짓밟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폴랜드 군부통치력 의문시

국민들의 자유욕망 제거힘들어

캐나다군 퇴역장군이 자현재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로버트·엘리옷씨에 따르면 폴랜드군인은 명령이 지시됐을때 어김없이 기강이 철저한군인들로서 "상관이 나가서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는군대"라고 평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군지도층이발사를 명령할 경우 미미한 불만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불복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전문가 존·에릭슨씨는 "솔리대리티 노조원과 군대사이의 피를 흘리는 싸움은 기대할 수 없다. 많은 군인들의 가족, 친척들이 바로솔리대리티 멤버이다

군부가 18, 19일경까지 전국을 완전 장악 못해 전국민 일제 봉기가 일어날 경우 폴랜드 자체군만으로 이를 다스릴 힘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80년 8월 볼틱해안의 그댄스크의 한 조선소에서발족한 유일한 자유노조 솔리대리티가 폴랜드를 이웃 공산권국들과 구별짓게하는 특징은 공산주의체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군사 쿠데타정권이 폴랜드에 들어섰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수상 보이체크·야루젤스키는 군부출신으로 처음에는 국방상으로 임명됐다, 차차 수상 공산당서기장등을 겸직했다. 이는 1941년 독일의 침공이후 스탈린이 소련의 요직을 겸직한 이래 공산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Scotia Bank / Toryork Dr. / Weston Rd. / Finch AV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2ND CLASS MAIL NO. 524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대학진학 관문 좁혀져

토론토대학 입시제도 구상

캐나다대학도 쉽게 입학이 허락되지는 않을 것 같다. 토론토대학은 교양학(General Arts & Science)에 입학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입학정도도 10% 줄여 만명선으로 고정할 방안을 구상한다고 학교당국이 발표했다.

온타리오대학위원회에따르면 토론토대학이 입학시험을 시도하는 최초마 대학이다.

입학시험이 없는 대부분의 온타리오 대학들이 입학시험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 것 같다.

토론토대학의 교양학 부아더·구르거 학장은 "우리는 현재 받고 있는 11,400명에 충분한 시설이 없다. 무슨 방법 으로든지 1만명선으로 줄여야 된다"고 말했다.

구르거 학장이 제의한입학시험 방법은 늦어도 85년도 입학생부터는 이 시험을 적용하되 입학시험과목은 영어작문응용력과 다른 과목 하나를 추가, 2과목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영어작문 응용력 테스트는 대부분 미국대학에서 적용되는 CEEB(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의 영어시험과 비슷한 것이다. 이외 다른 과목은 캐나다역사 또는 사회과학 과목 하나정도이다.

구상중인 입학시험 방안에 의하면 최소선을 정해 소정점수 이상의 학생에한해 시험성적과 고등학교성적을 고려, 입학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곧 대학위원회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의료혜택 범위확대

주의회, OHIP에 촉구

온타리오 건강보험 계획(OHIP)은 18세이하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치아관리를 해주는등 의료혜택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 의회 운영위원회가 촉구했다.

이 건의에는 이 밖에 온타리오 북부 거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여행에 드는 교통비, 어린이들의 의족, 휠체어, 보청기, 안경및 인술린과 같은 특정약들의 무료공급도 포함되어 있다.

주의회 운영위원회는 보수당6, 자유당4, 신민당2로 구성되어 있다.

동위원회의 보고서는 동건의와 아울러 상당수의 의사들이 수입을 많이 올릴 목적으로 환자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진료회수를늘많이 가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온타리오 의료 제도를 붕괴시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동위원회는 의사들과 일반시민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느끼는 선에서 의사들의 진료비 스케줄이 정해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이 조정된 시스템에서는 과도청구나, OHIP 에 가입하지 않과 의사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이같은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대해 17일 보건장관 데니스·팀브렐은 아직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없었으나 이해가 가기전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베레스트 征服 누가 먼저냐…

힐라리경과 말로이 놓고 논쟁 再燃

▲히말라야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의 비교적 쉬운 코스로 알려진 남쪽등반코스. 1954년 에드몬드·힐라리가 이코스를 이용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후에도 1백여명의 등반가들이 이남쪽코스를 이용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했다.

1953년 頂上오른 힐라리쪽이 알려진 定說
1924년 등반도중 失踪한 말로이說이 불쑥
현재로선 말로이說 뒷받침할 확증 못잡아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등반가는 세상에 알려진대로 1953년 영국의 에드몬드·힐라리경이냐 아니면 이보다 29년 앞선 1924년 레이·말로이인가 하는 의문이 다시 일고있다.

지난4일밤 보나벤쳐 호텔에서 열린 미알파인클럽연차총회에 초청된 중공등산협회 시·잔천부회장은 지난 1960년도 중공등반대의 히말라야등반 당시 2만9천28피트(8천8백48미터)의 정상을 1천2백피트 남겨논 2만7천8백피트지점(8천5백미터)에서 1924년 히말라야 정복길에 나섰던 전설적인 영국등반가 레이·말로이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산용로프, 나무붙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씨는 또 이지점에서는 한시간정도면 정상을 정복할 수 있으며 2만7천피트 지점에서는 「영국채」라고 쓰여진 2개의 산소통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1924년 레이말로이의 등반」을 조사해온 미알피니스트 돈·혼젤은 시씨의 진술로 보아 말로이는 전에 알려진 지점보다 수백피트 높이 올라갔을것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에베레스트 정복의 최대난문인 세컨드스텝(Second Step)수직암벽을 통과했느냐는 것이 말로이등반 문제를 풀수있는 실마리라고 말했다.

한편 시씨는 자신의 이발견을 왜 지난21년간 발표하지 않았는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힐라리도 그의 저서 「에베레스트의 정복」에서. 1953년 5월29일 자신이 정상에 올랐을때 말로이의 등반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난코스로 알려진 히말라야 북쪽등반코스를 택해 정복길에 나선 레이·말로어(당시37세)와 동료등반가 앤드루·얼바인(22)이 최후로 목격된것은 1924년 6월8일 낮12시50분. 망원경을 통해 이들을 지켜본 또다른 동료 등반가 노엘·오델이 이들 2명이 세컨드스텝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후에 그들은 세컨드스텝보다 낮은 지점인 휘스트스텝(First Step)을 등반한 것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었다.

당시 날씨는 거의 완벽했으나 정상근처의 엷은 구름이 하오2시께 점차 두꺼워지면서 2시간동안 약간의 진눈깨비를 동반한것으로 알려졌다.

혼젤은 만일 당시 진눈깨비가 그치고 하늘이 계속 맑았으면 남은 1천2백피트는 미숙한 등반가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진눈깨비가 계속되었으면 위험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말로이등반을 확인할 수 있는 세컨드스텝통과의 사실을 밝혀낼 수 없으나 말로이는 등반당시 목에 코닥카메라를 걸고 정상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만일 말로이가 정상을 정복했다면 정복사실을 이카메라에 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돈·혼젤은 이카메라는 특수제작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이카메라의 행방을 발견하는 것이 세컨드스텝통과여부와 함께 말로이등반을 풀수있는 또하나의 열쇠라고 말했다.

한국프로야구팀, 백인천에

선수겸매니저 제안

(서울 18일=연합) 한국태생으로 일본 프로야구팀, 킨텟수버팔로 선수로 활약하는 백인천씨가 한국MBC프로야구팀으로부터 선수겸 매니저 제안을 받았다.

18일 MBC소식통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백씨는 연봉 3천6백만원(미화5만2천달러)과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6개프로팀에 똑같이 적용되는 선수및 매니저 봉급규정에 의해 백씨는 5년계약으로 계약금2천만원에 A급매니저 연봉1천 2백만원, A급선수 연봉 2천4백만원을 받게 된다.

그는 현재 일본 킨텟수팀에서 연봉 1천~1천4백만엔(한화 3천~4천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지대공미사일 한국에 판매계획

(와싱턴)미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28기 판매계획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17일 미국방성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것은특한의 공군력이 숫적으로우세한데 대한 상쇄 조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여분의 부속품과 훈련비를 포함, 미사일 구입비로 8천2백만달러를 지출한다.

미국방성은 전투기 수로 볼 때 남한이 북한보다1:2로 열세하다며, 최신무기 구입으로 남한은 대공 방어능력이 한층 신장될 것으로 보며,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고>

전인격을 요구하는 태권도

「오타와 시티즌」크게보도

[소개말]다음글은 오타와 유일한 일간지 「The Citizen」의 스포츠 라이터(Sqorts Writer)에디·맥케이브 기자가 쓴 태권도에 관한 글로서 동지 지난 11일자 스포츠1면에 실린 글이다. 한국이 88년올림픽을 유치하고, 태권도를 삽입시키려고 노력하고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스포츠기자가 태권도를 보는 글이기에 이에 번역, 게재한다.

◇에디·맥케이브

이태은 특파원

어젯밤 나는 태권도를약간 배울 기회를 가졌다.

신문사의 동료들이나대부분 캐네디안은 태권도가아마 아주매운 동양음식이겠지 하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태권도는 한국 전통의무술아니 그 이상 이었다. 마음평화와 심신을 단결시킬 수 있는 무도였다.

단한시간 수련생들 시범이나 관장과 몇마디 나누고 이를 다 깨우친다는것은 무리였다.

태( )자는 날고 차는것을 뜻하며, 권( )자는 주먹을 사용하는것을 말하며, 도( )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경기를 처음받을때는 상대방 코를때릴수 없고, 잡아당기고 밀칠수 없다는 규칙외에는 킥복싱과 비슷한것 같았다.

오타와의 태권도 관장은 이태은씨였다. 이씨는 전한국군 ROTC 장교출신으로 군에서 태권도 교관을 지냈고, 침술자격증까지 소유한 태권도7단 소유자이다.

그의 도장에는 8명의 사범이있고, 오타와의 대학·고등학교등 약 1500명이그의 수하에서 태권도 수련을 쌓고있다.

이 1500명 중에는 6살짜리 꼬마서부터 70세 노인까지 있었다. 이 도장 사범중의 하나는 62살의 노인인 앤·커더더씨 였다.

이씨의 제자중에는 의사에서 불구소년, 정신장해자등도 있다.

1년 반전 한 뇌성마비 소년이 도장에 찾아왔다. 이 소년은 거의 걸을 수도 없었다. 이사범은 이 소년에게 유연성과 힘을 기르는 훈련을 시켰다.

이 소년은 차기, 부수기등 모든 것을 배우려 했다. 천천히 노력한 결과 이 소년은 이제 아무 힘 들이지 않고 1시간짜리 수업을 꺼뜬히 해낼 수 있다고 이사범이 들려줬다.

이사범은 "그 소년은 성공한 예이다. 사람들에게는 나도 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며 몸과 마음의 일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사범이 강조하기를 "우리는 입관생들을 선별한다. 멍청한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만난 모든 수련생들은 깨끗하고 총명했고, 예절발랐다. 이것이 바로 이도장의 가르침이라 한다.

태권도는 부단한 노력, 고된 훈련을 요구하며, 2000년 이상 전해 내려온 무도예술이다.

태권도는 과학적 으로도 잘 조직돼 있다. 요소요소의 급소가 해부학적으로 분석돼 있고 손을 사용하는 기본형 만도 50가지가 넘으며, 발을 사용하는 형도 200가지가 넘는다. 또 호흡, 손·발 복합에 따라 수천가지 형도 나올 수 있다.

시멘트 벽돌이나 판자를 깨는 것을 볼 때 그저 감탄의 연속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마로 벽돌을 깨는 것이었다.

내가 도장을 찾았을 때 한 젊은 수련생은 1인치짜리 판자를 공중 날아 쪼개버렸고, 음악을 전공한다는 여학생도 이와 비슷한 묘기를 보였다.

이사범은 "기술과 힘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숙련도를 가르는 방법은 유도나 가레데처럼 허리띠 빛깔에 따라 구분한다. 물론 흰띠는 초보자를 가리키며, 검은띠가 유단자를 말한다.

어떤이들은 경기를 하기 위한 선수과정을 받아 캐나다 올림픽대표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84년 LA올림픽에는 태권도가 시범경기로 인정받았으나 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정식경기로 채택되는 것이 모든 태권도인의 소망이다.

태권도가 캐나다의 도입된지는 약 12년쯤 된다. 캐나다 전국에 50개가 넘는 도장이 산재해 있으며, 수천명 태권도인이 있다.

세계 태권도연맹은 지난 74년 서울에서 조직됐으며, 이제는 전세계 106개국 에서 2백만이 넘는 태권도 인구를 갖고 있다. 있

이사범이 오타와에 도장을 차린 이유는 오타와가 태권도의 불모지였기 때문이라 한다. 이사범은 오타와에 오기전 위니펙에 있었으며, 그후 미국 하버드대학과 MIT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다.

태권도는 세계적 조직망을 갖고 있고, 엄격한 구성과 심사를 받는다. 자기방어를 위해서든지, 건강등을 이유로든지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은 다르나 그 의미는 무척 크다.

모로코 출신의 외교관 노레디는 하나위는 이렇게 말했다. "태권도와 비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자기자신의 악마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려면 신의 의지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나 어쨌든 태권도가 전통의 무도이며,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무술임에 틀림 없다.

한 카합동 X마스 파티

해병전우회, 참전용사회

지난 13일 캐나다국장교클럽에서 개행된 캐나다군한국전참사용사회(회장 고든·루카스)와 해병전우회(회장 남상현)의 합동 X-마스파티는 120여명이 성황을 이루어 다시 한번 한·카의 우의를 돈독케해주는 회합이었다.

양측 회장의 인사말등에 이어 이상훈 총영사가 축사를 했고, 「메리 크리스마스」 합창에 이어 1부는 끝이 났다.

박홍씨의 전자올갠 연주로 시작된 2부에서 김용순무용단이 한국 고전무용을 소개해, 캐나다군 참전용사의 감탄을 자아 냈고, 이인모, 남경우씨등이 해학적인 스트립쇼를 벌여용사가족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번 파티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갖는 파티로 한국-캐나다의 점진하는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본보기의 하나였다.

파티 마지막에는 신세계여행사제공 뉴욕왕복 항공권, 고려보석제공의 귀거리등의 경품추첨이 있었다.

킹여사에 승소판결

동성연애자 바네트에 "집내줘라"

(LA-AP) LA수페리어코트는 11일 테니스스타 빌리진 킹이 그녀의 동성애상대자였던 마릴린 바네트를 말리부 해변가의 집에에 쫓아내기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담당 타이틀판사는 킹과 바네트 사이에는 아무런계약이 없었으므로 바네트는 그녀가 지금살고있는 집을 마땅히 비워줘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바네트는 킹이자기를 위해 그집을 사주었다고 주장했었다.

◆다시일터로-최근에 부인 나탈리·우드를 잃은 로버트·와그너(왼쪽)는 TV드라마 「하트 투 하트」촬영을 위해 15일 다시 스튜디오에 나타나 공연배우인 스테파니·파워즈와 웃고있다. 파워즈와 한때 동거했던 배우 윌리엄·홀덴도 최근에 횡사했다.

◁금주의 행사▷(12월21일~12월27일)

◇12월22일(화)하오 6시 에머리고교 한인학생회 파티
곳 : Recreation Room (Jane × Finch 콘도미움 아파트)
연락처 : 742-1460(김성환)

◇12월22일(화)하오 6시 와우동산(홍익대)파티
곳 : Master Place Party Room(284 Mill Rd, Etobicoke)
연락처 : 242-5194

◇12월23일(수)하오 7시~새벽 2시 KUSA크리스마스파티
곳 : Tartu Banquet Hall(310 Bloor St. W.)
연락처 : 298-0432(천명호)

◇12월26일(토)하오 6시 경기동창회 망년파티
곳 : Weston Hotel Tor. Governor General Suite (145 Richmond St. W.)
연락처 : 964-3644(윤호영)

◇12월26일(토) 하오 7시 동우연말파티
곳 : 스카이라인·토론토호텔 (볼룸 A 2층)
연락처 : 222-5370(김남용)

◇12월26일(토)하오7시 배재동문회 망년파티
곳 : 2188 Bloor St. W. (at Bloor × Runnymede)
연락처 : 763-1155(손명수)

◇12월26일(토)하오 7시 선린동문 송년파티
곳 : 동문 옥성빈 자택(1005 Shawnmarr Rd. Unit 183 Miss.)
연락처 : 255-2111(전기덕)

◇12월26일(토)하오 7시 서울공고 망년파티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757-8000

◇12월26일(토)하오 6시 호남향우회 망년파티
곳 : The Triumph Sharaton Hotel (Senetor Room 1층)
연락처 : 535-4000(박주삼)

◇12월26일(토)하오 7시 보성동창회 연말파티
곳 : 회장댁(78 Elmbrook Cres.)
연락처 : 621-9510(안경영)

◇12월26일(토)하오 6시 서울사대부고 망년파티
곳 : 프린스 호텔 1층 "프린세스룸" (York Mill & Don Mills)
연락처 : 251-6578(백이삼)

동우연말파티

동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 우리들의 동우연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새벽1시
장 소 : SKYLINE TORONTO HOTEL (BALL ROOM A 2층)
665 DIXON RD(AT HWY 27)
식 사 : 부페
밴 드 : 권순근악단일원
입장권 :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222-5370(총무 김남용)
270-1531(기획조사 정기영)
759-8349(섭외 김진현)
439-7093(체육 신우원)
746-4220(문화 조국현)

※경품은 한국왕복항공권(부부), 플로리다 왕복항공권 TV, 등 다수선물을 마련하였음.

토론토동우회 이사, 임원일동 드림

서울 사대부고 망년 파티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서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 프린스 호텔1층 "프린세스룸"
YORK MILL & DON MILLS
회 비 : $40.00(커플), $25.00(싱글)
※COCKTAIL,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 백 이 삼-251-6578
김 강 욱-298-4232
송 광 호-533-2364

●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새봄을 장식할 노래의 복음

서울염광여고 선교합창단 공연

아름다운 모국 소녀들이 맑은 가락에 복음을 담고 바다건너 찾아와 이민현지의 새봄을 훈훈하게 해준다.

토론토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 주최, 〈한국일보-토론토〉사 후원으로 서울 염광여고 선교합창단의「신년음악회」가 아래 일정과 같이 4일간 토론토에서 공연한다.

미국연합장로교단 초청으로 제2회 북미순회공연중 토론토에 들르는 이들 여고생들은 80년도 세종문화회관서 실시된 전국중고등부 합창경연대회서 특상한 고등부합창단 으로서는 한국 최고로 평가되며, 단원들은 전원 성악뿐 아니라 악기도 다루는 음악재사들이다.

◇염광선교합창단 일정

12월30일(水) : 토론토 도착, 시내관광
12월31일(木) : TV촬영 : 밤11시 한인장로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찬양연주
1월1일(金) : 양로원 방문
1월2일(土) : 한국노년회총회석상 공연 캐네디안을 위한 공연
1월3일(日) : 하오7시30분 교민 위한 공연
1월4일(月) : 미국으로 출발
문의및 연락처 : 535-6864 (한인장로교회)

要人암살이 없다 中共의 不可思議

—共産정권31년 숱한 權力闘爭 겪었으나…

31년간에걸친 정치적 반목, 때로는 유혈을 부른 파벌간 싸움에도 불구하고 중공에서는 지금껏 중공당이나 정부지도자들에대한 암살사건이 단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구나 흥미있는 것은 중공지도자들이 어떤 눈에띄는 삼엄한 경호도 받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공의 지도자들도 물론 경호원을 두고있으나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해주는것은 경호원들의 총이아니다.

지도층들은 그대신 은둔생활과 비슷한 생활방식, 높은 담장, 그리고 풍문이긴하나 북경시내 땅밑을 지나는 전설적인 비밀 지하통로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있다.

미국관리들을 수행, 중공을 방문했던 미 비밀경호원들은 북경에서 경호임무가 비교적 용이하며 감시해야할 군중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했었다.

중공에서는 지도자들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군중들과 섞이는 일이 없는데 일반대중들은 지도자들에게 외경심을 가져야하고 질문을 해서도 안된다고 배워왔으며 대중들의 총기소지도 금지되어있다.

중공의 현지도자들은 권위를 존중하는 중국의 옛전통에의해 보호받고 있는 셈인데 고당주석 모택동은 사실상 신으로 숭앙받았다.

그러나 모택동은지금까지 공개된 유일한 암살기도의 목표이기도했다.

쿠데타 기도실패후 중공을 탈출하다 비행기사고로 죽은 전국방상 임표는 모택동의 특별열차를 폭파한뒤 화염방사기를 이용, 모택동 암살하려 기재했던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음모는 모택동이여행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실패로끝났다.

중공대중들은 지도자들의 사생활에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중공지도자들은 개인적 반감의 목표가 될수있다.

미국과는 달리 중공에는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직접뽑는 선거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활동은 공산당의 지도층내부에서만이뤄진다. 대중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대중속에뛰어들 필요도 없는것이다.

「"北京은 세계에서 가장 경호하기 쉬운곳" 執權層과 대중 접촉기회 거의없어 일반인들 指導者들에 외경심 갖고」

중공지도층의 거주지역인 북경시내 중남해로부터 인민대회당으로 통하는 지하 비밀통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지도층만이 알고있는비밀 사항이다.

대규모 당대회가 열릴때 인민대회당앞에서 승용차의 행렬을 볼수있는 일은 거의없으며 밤늦게까지 켜진 상들리에, 회의가 끝난뒤 신문의 보도들이 회의 개최사실을 알릴뿐이다.

자동차편으로 도착하거나 떠나는 사람이 없는만큼 거의 모든 북경 시민들은 비밀통로가 있는것이 틀림없다고 믿고있다.

보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민대회당을 방문해보면 중공지도자들에 대한 경호조치가 눈에띄지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된다. 중공군 병사2명이 권총이나 소총을 들고 정문을 지킬뿐 방문객에 대한 어떤 수색이나 보안점검도없다.

한특별군부대가 당정치국원과 다른 고위관리들에대한 경호임무를 맡고있으나 경호원들은 눈에띄지않으며 실제로 그들의 구성이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있다.

중공의 실권자인 당부주석 등소평과 주석 화국봉은 방탄유리의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

지도자들중 많은수는 회색의 높은 담장이 둘러싸인 중남해지역에 살고있는것으로 믿어지는데 이곳만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있다.

또한 지도자들이 지방시찰에 나설 경우 지방당국은 말썽꾼들을 예비검속하고 경비조치를 강화하는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전 등소평이 휴가차 한 산악 휴양지를 방문했을때 이휴양지가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의 출입이 제한된적이 있었다.

중공학생들이 이같은 특권에 항의하자등소평은밖으로 나와 악수와 환담을 교환한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출입제한조치는 해제되지 않았었다. 끝.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09)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때 오호토는 이할미우트의 기원, 내력과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호토는 "옛날엔 당신이 지금 보는것 처럼 그렇진 않았지요…"하고 시작하더니 잠시 멈춘 후에 담뱃대를 화난듯이 자기 앞으로 잡아당겼다.

"…태초에는 하늘에 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먼 옛날에는 육지가 따뜻하고 말라 있었지요. 눈도 비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먹구름이 낀 하늘에 천둥이라는 카일라가 이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처음엔 카일라가 토끼와 뇌조를 깜깜한 육지로 내려보내서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골짜기를 그들의 발자국으로 뒤덮을때까지 번식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래서 토끼와 뇌조는 명령받은대로 캄캄한 세상에 내려와 살았답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을 뒤덮을만큼 많아지자 카일라신은 준비가 된 것을 알았지요. 카일라신은 첫번째 남자와 여자를 보고 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있는 세상으로 내려보냈읍니다. 그러나 카일라신 자신은 어두움 속에서도 햇볕이 있을 때처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이들이 어둠속에서는 아무것도 못본다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므로 그 많은 토끼와 뇌조가 있었지만 굶을 수 밖에 없었더랍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높은 산위로 올라가서 카일라신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지요.

카일라신이 이것을 듣고어두운 세상으로 햇불을 내려보내서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햇불에서 열이 나와서 음식을 데울 수가 있었읍니다. 카일라신이 그 여인에게 불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임무를 여자가 맡게 되었던 거지요. 남자는 자기 집게손가락을 불속에 넣어 불을 달려가지고 햇불을 만들어 자기가 가는 길을 밝혔읍니다. 그 첫번째 남자가 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토끼와 뇌조를 잡을 수 있었읍니다.

오랫동안 이 남자와 여자는 행복하게 굶지 않고 잘 살았지요. 드디어 이사냥꾼의 햇불때문에 토끼와 뇌조는 조심스러워졌고 토끼는 땅속으로, 뇌조는 공중으로 각기 도망을 쳤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다시 굶주림이 왔지요. 여인은 다시 한번 산위로 올라가 여인의 슬픔을 카일라신에게 고하자, 이번에도 들어주었는데, 카일라신은 여인에게 아주 큰 구덩이를 파서 아무도 밑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라고 일렀대요. 구덩이가 다 되자, 카일라신은토끼심줄을 모아 튼튼하게끈을 꼬아서 그 끝에다 뇌조의 날개뼈를 달아놓도록명령했지요. 이번에도 하라는대로 했읍니다. 카일라신은 여인에게 훅크가 달린 줄을 파는 구덩이 속에 깊이 넣어서 기술을 발휘해 보라고 했읍니다. 남자가 옆에 서서 햇불을 밝혀 그림자가 구덩이 속에서춤을 추는듯 할때 여인은 줄을 넣어 붙들고 있었지요. 그러자 밑에서 무엇이 줄에 걸려들었읍니다. 여인이 재빨리 줄을 잡아당겨보니 땅속에서 첫번째의늑대가 끌려나왔읍니다. 늑대는 고기를 먹는 짐승이지 고기를 제공하는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은 풀어주고, 땅을 덮을만큼 번식하라고 명령했읍니다. 늑대는 알아듣고 여인의 말에 복종했지요. 여인은 계속해서 그 구덩이속으로 줄을 집어넣었고, 매번마다 무엇이 걸려 들어 꺼내올려서 육지에 살고있는 모든 짐승들이 걸려나온 것입니다. 아마우, 흰여우 칵웍, 회색의 오소리, 아쿨라, 거대한 갈색곰, 힉킥, 붉은 털의 다람쥐 오밍묵 털부숭이 사향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때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승들은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각동물마다 늑대에게 한 것처럼 일르고, 모두 놓아준 후에 여인은 다시 줄을 던졌읍니다.

육지의 짐승 다음으로공중에 나는 짐승이 나왔지요, 즉 팅메아, 흰 거위, 우울닉, 긴꼬리 오리등 각종날짐승이 나왔지만 여인이 원하는 것은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똑같은 명령을 한 후 모두 놓아보냈읍니다.

날짐승다음으로 물고기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이치로아, 붉은 트라우트, 아톤주 써커등 모든 물고기였읍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찾고, 이들을 강과 호수에서 번식하도록 놓아주었답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 (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三國志 (279)

글·高羽榮·그림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서울염광여자고등학교 선교합창단 초청

신년음악회

일시 : 82년1월3일(일)저녁7시30분
장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미국연합장로교단 초청 2회 북미순회공연중 토론토방문. 전국중고등부 합창경연대회 특상(세종회관 80년)노래하며 악기를다루는 한국최고 고등부 합창단이 희망찬 80년도를 맞이하는 교민들에게 신년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일정소개)
81년12월30일(수) : 토론토 도착, 시내관광
12월31일(목) : TV촬영, 송구영신예배찬양 밤11시 본교회에서 송구영신 영신예배 있음.
82년1월1일(금) : 양로원 방문
1월2일(토) : 노년회총회시 공연, 캐네디안을 위한 공연
1월3일(일) : 시내한국인교회 예배특송(오전중)
1월3일(일) : 저녁7시30분 교민을위한 공연
1월4일(월) : 미국으로 출발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말씀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EL: (416) 535-6864

주최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후원 : 한국일보 토론토[redacted]6864)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燕山主의 魅力 <15>

한국의 恋人들

虛名十二年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結婚·登極·流配때·똑같이 비오거나 바람일어 不幸예고

在任 11년 9개월 7일… 31세때 中宗에게 政權 빼앗겨

총명하고 슬기로왔던 연산, 인정이 많고 욕망이 컸던 연산은 불행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제왕 12년〉 드라머의 주역을 마치고 퇴장했다. 그런데 그의 불행한 등장과 퇴장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서 그 자신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그는 광분했고 빨리 퇴장했는지도 모른다.

세자시절의 어느 날 거리에 나가 놀다 오겠다고 성종에게 허락을 얻었다.

저녁 때 대궐로 돌아온 융에게 성종이 물었다. 『거리에 가보니 무슨 볼만한 것이 있더냐?』 융의 대답은 이러했다. 『볼 만한 것이 있겠읍니까? 다만 송아지 한마리가 어미 소를 따라가는데, 그 어미 소가 소리를 내면 송아지도 소리를 냈읍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가는 정경이 가장 부러웠읍니다.』 이 말을 듣고 성종이 슬픔을 머금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연산은 혼인도 불행을 싸안고 치렀다. 열세살 되던 1488년 2월6일에 세자빈(世子嬪)을 맞았는데 이날 아침부터 비바람이 거셌다. 마음이 거슬린 성종은 스스로 위안하기 위하여 세자빈의 아버지 신승선(左參贊·愼承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일반의 관습으로는 혼인날 바람불고 비오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나 바람이 만물을 흙지이게 하고 비가 만물을 윤택하게 하니 만물이 비바람덕에 사는 것이요〉하였다.

점심 때부터 날씨가 개어 청명하였는데 아마 혼인날 아침의 비바람이 무오·갑자사화등을 예고한것인지 모르겠다.

성종이 죽자 사자(嗣子)인 융이 성복(成服)해야 하는데 성복한 날짜가 불길하다 하여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이 세자에게 해롭다고 수군대므로 왕비가 성복 날짜를 물리거나 당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시일의 길흉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이미 소렴을 지냈으니 예문에 따라야 한다는 빈전도감(殯殿都監) 제조(提調) 이극돈(李克墩)의 말에 놀려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산은 결혼할 때, 아버지의 뒤를 이을 때, 뒤따르는 불행의 그림자를 뿌리치지 못했다. 영감이 뛰어난 연산은 이러한 불행의 그림자를 알아차렸는지 중종에게 왕위를 빼앗기던 1506년1월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공명도 죽은 후엔 모두 헛것이니/평시에 음악과 술 취하며 편히 지냄만 못하여라/한 번 청년으로서 황토에 묻히는 손이 되면/이 세상 돌아오기 어려우니 한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 (功名身後盡空虛 不似平時樂醉舒 一作靑年黃壤客 難回於世恨何如)。

그리고는 끝에다가 『군자는 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 만약 천운(天運)을 당하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라고 썼다.

3월18일에 쓴 시도 그러하다.

태평한 때 자주 놀고 취함을 싫어하지 말라/한번 황천을 건너면 다시 오지 못하리/괴롭게 헛 명예를 낚은 것이 참으로 가소롭구나/누가 능히 임금의 마음 기쁘게 할까 (淸時莫厭頻遊醉 一涉黃泉定不回 苦釣虛名眞可笑 誰能端令悅君懷)。

이 시를 보면 연산은 매우 감상적이며 염세주의자였고,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만 연산은 그가 해보고 싶은 것을 모두 성취했기에 성취뒤에 공허를 느낀 나머지 죽음의 공포로 비약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연산은 네 자녀의 죽음에 눈물을 쏟았고, 사나이답지 않게시리 사랑하는 후궁의 주검앞에서 통곡했나보다.

원주출신 기생인 월하매(月下梅)는 음률(音律)을 알고 유머에 뛰어나 연산의 사랑을 한몸에 모았는데 병을 얻어 별원(別院)으로 옮겼다. 연산이 여러차례 문병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한 나머지 여완(麗婉)이란 칭호를 내리고, 친히 두세번 제사를 지내면서 통곡하였다. 사나이, 특히 제왕은 울지 않는 법인데도。 뿐아니라 왕비와 후궁, 홍청을 모두 거느리고 무당을 불러 넋을 위로하였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왕이 한밤중에 후원을 달리기도 하였다.

이때가 즉위 11년째인 1505년9월로 중종에게 반정당하기 1년전이니 아마도 연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의식했는지도 모른다. 남달리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심령과 대화한다니까 연산도 그러했었나보다.

융은 열아홉살인 1494년 12월25일에 성종의 뒤를 이어 조선 10대왕으로 등극했다가 11년 9개월 7일간 재임하고 서른 한살되던 1506년 9월2일에 왕위를 빼앗겼다. 여느 임금들처럼 죽어서 왕위를 물린 것이 아니라 찬탈당했고, 신하와 백성들의 호곡속에 눈감지 못했으며, 폭군으로 몰린 나머지 분명히 왕이었건만 왕으로 불리지도 못한다.

남달리 겁이 많았던 연산은 왕답지 않게 최후를 마쳤다. 왕의 보위를 찬탈당하는 장면이나 임종 순간이 모두 그랬다.

9월2일에 연산은 차비문(差備門)에 앉아 승지들을 불러다가 앉게 한뒤 태연하게 말했다. 『이렇게 태평한 시절에 어찌 변이 있겠느냐. 이것은 필경 홍청들의 남자가 서로 모여서 도둑질을 하는 것일게다. 속히 정승들과 금부당상을 불러서 처치하도록 하라.』고 명령한뒤 승지 이우(李堣)더러 영쇠를 가지고 결문을 살피게 했다. 그러다가 승지들이 난리라고 아뢰자 놀라 뛰어나와 승지의 손을 잡고 턱이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승지들이 왕을 옹위하기커녕 살려고 소매를 뿌리치면서 달아나자 연산은 수챗구멍으로 도망하여 평시서(平市署) 민가에 숨었으나 곧 잡혔다.

진성대군(中宗)에게 왕위를 물리고 강화로 유배될 때는 그가 받은 형벌이 무엇인지 초조하게 물었다. 연산의 퇴위는 회오리바람이 가라앉은 것인데 반대로 강화로 떠나던 날 마침 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뒤집힐뻔하다가 간신히 교동에 닿았다. 혼인날 비바람이 몰아쳤듯 그는 거센 바람과 인연이 깊어서인가? 교동 현아(縣衙)뜰에 들어서 장졸들이 포위하고 서자 연산은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면서 감히 처다보지도 못했다.

이곳에서 연산은 회한의 나날을 보내다가 홧병을 얻어 두어달만에 죽었다. 면적이 좁은 조선의 제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의 황제를 능가하여 천하 제일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했던 왕중왕의 말로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비정하다.

어쨌거나 연산은 조선의 10대 임금으로 채 12년이 안되는 기간 웅대하고 화려한 드라머의 주인공이었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외모는 아주 평범했던 것같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시위(侍衛)했던 한 군사가 주상의 모습을 전파한 죄로 국문당했는데 그 군사가 한 말은 이렇다. 『허리와 몸이 가늘어 그다지 웅장 위대하지 못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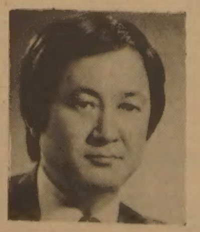
(燕山王項目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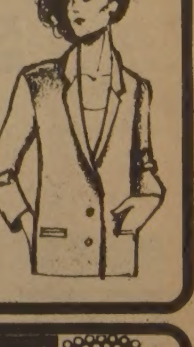
해외 걸작 만화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리
☎:533-236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베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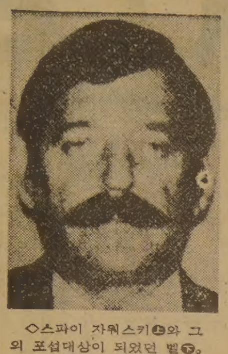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美國서 暗躍하는 KGB의 正体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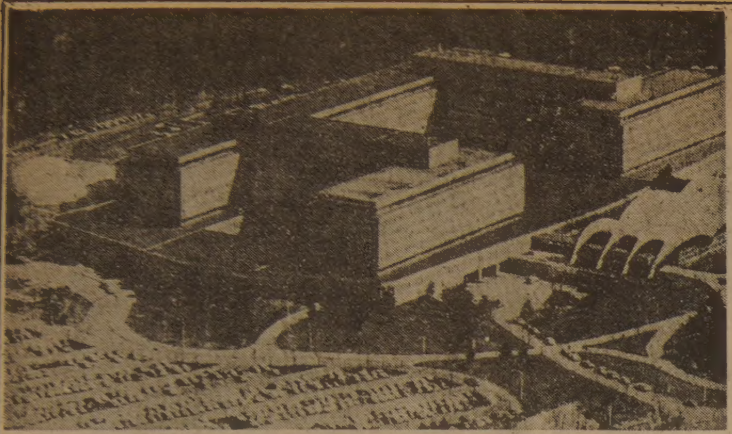
超특급 秘密까지 간단히 빼내간다

데탕트이래 급격히 浸透늘고

美國務長官 매수企圖하기도



◇스파이 자워스키(上)와 그의 포섭대상이 되었던 벨(下).



◇미국의 CIA本部 건물.

한편, 소련첩보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외곽 휴즈비행장에 근무하는 벨을 막대한 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은 소련의 관심이 미국기술공학의 왕국과도 같은 캘리포니아에 쏠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근처 실리콘 계곡에는 6백여개나 되는 정부의 국비사업체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근처엔 3백50여개의 주요방위산업체가 있다.

■諜報戰과 國內治安

고도로 발달한 국내 과학기술이 스파이들을 통해 소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행정부는 그 첫번째 조치로서 매년 연례적으로 소련에 보내오던 상무성과 국방성에 관한 자료(기밀서류로 분류되지 않은 것)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美행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들 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FBI는 국방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TV劇「FBI」에서 수사관으로 출연했던 랠런트 에프렘·짐벌리스트2세를 내세워 TV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효력을 발생하는 탓인지, 몇몇 산업체에서는 소련인이 포함된 산업시찰단은 거부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美國과 소련간의 첩보전의 양상은 전통적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요시찰 인물ー KGB요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포섭대상을 알아내 그들을 역으로 이용, 이중간첩을 만든 다음 거짓정보를 흘려 소련정보부를 당혹시키는 일등이다.

지난 78년 캐나다경찰이 FBI에 美원자력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오타와에 있는 소련대사관을 자주 드나든다는 정보를 흘려주었다.

FBI는 그를 설득시켜 이중간첩을 만든 다음 6개월이상 그로 하여금 거짓정보를 전달하게 만들었다. 결국 소련정보부에서 이를 알아내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가 거짓정보인지를 몰라 쩔쩔 매게 되었다.

이처럼 FBI가 첩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은 KGB에 포섭됐던 사람들이 전향하여 당국에 자수했을 때, 인데 FBI의 방첩전문가인 제임즈·놀란의 말을 빌면 『소련의 침투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놀랐다』는 것이다.

레이건政府 對處위해 苦心

內國人査察法 立法 주장도

◇모스크바의 제르진스키 광장에 있는 KGB本部 건물. 이곳에는 수천명의 要員들이 있다. 政治局위원인 안드로포프의 지휘아래 KGB요원들은 전세계각처로 흩어져 온갖 기밀을 빼아내는 불가사의한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한편 많은 정보전문가들에 따르면 KGB가 투자한 노력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것은 중첩된 업무와 그들 자신의 편집광적인 집착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이들 스스로 당노선을 너무나 의식하기 때문에 정보조차도 왜곡하곤 한다는것.

그러면 미국은 소련의 첩보활동과 파괴공작에 어느 정도 대처해야하는 것일까. 비교적 보수적인 레이건행정부의 몇몇 고위관리는 심지어 내국인 사찰까지도 서슴지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현직정보담당자들은 이런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느낀다. 오히려 대국적 의미에서는 역효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것.

『우리는 무척 개방적이었던 카터행정부 아래서도 잘해 왔읍니다』라고 FBI부국장 오말리는 말한다.

상원정보분과위원회도 오말리의 의견에 적극 동조한다. 백악관은 이런 상원의 압력에 따라 국회에 상정한 예정이었던 내국인 감시법안을 당분간 보류하고 수정을 가하기로 했다. 美國이라는 나라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민주주의라는 기본원리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로운 점이 전혀 없으리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방사회와 소련의 전체주의 사회간에 구별이 없어진다면 그때야말로 소련이 첩보전에서 승리를 거둘 공산이 큰 것이다. 〈끝〉

〈■=金京姬기자〉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뭣좀 먹게 몇달러만 보태줍쇼?"

"얼마나 필요한데?"

"5천달러"
"5천달러!!"

"물론입죠。그대신 오랫동안 다시 구걸하지 않아도 될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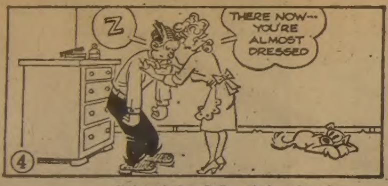
조규력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本社特約
블론디
딘·영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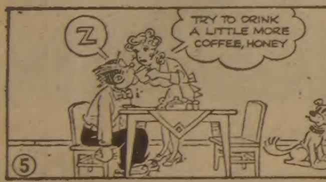
"아니 저런/"

"또 힘든 아침이 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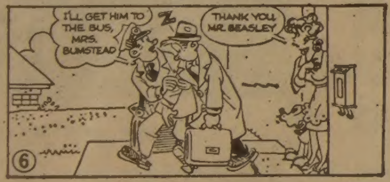
"우선, 면도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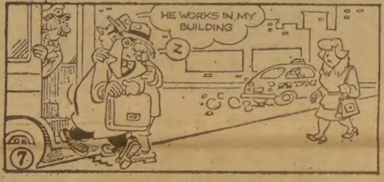
"자 이제…옷을 거의 다 입으셨어요"



"코피를 조금만 더 마셔보세요, 여보"



"내가 이 양반을 버스까지 모셔다 드리죠, 범스테드여사"
"고마워요, 비슬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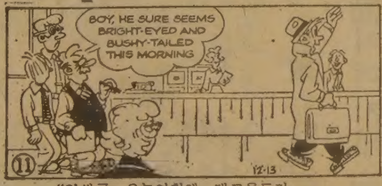


"이 양반은 내 빌딩에서 일하죠"

"제가 이 분을 이기서부터 모시죠…이 분은 우리 사무실 지배인이에요"

"자, 범스테드씨…우리 사무실에 왔어요…지금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여러분 모두에게 위대하고 중요하고 쾌활한 좋은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얼씨구, 오늘아침엔 대그우드가 확실히 눈빛이 빛나고 원기가 충천하단 말야"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가와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의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野球스타 張勳이 배트대신 日武士칼 잡이로…

張勳이맡은 곤도·이사미는 日의 近代化막으려던 殺戮團長

◇야구스타 張勳이 日本의 한 TV영화에서 배트대신 칼을 휘둘러 심심찮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있다.

23년간의 프로야구선수생활을 청산한 張勳선수가 日本의 한 TV영화에 칼을 휘두르는 武士로 출연했다고 해서 개운찮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日本武士로 출연해서 나쁘다는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역할이 별로 탐탁스럽지 못하다는데서 張勳을 아끼는 국내 팬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張勳선수가 영화에서 야구배트 대신 칼을 잠시 잡았다해서 시끄러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

張勳은 프로선수이기때문에 광고모델이 될수도 있고 무대에 나갈수도 있으며 영화에 출연할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프로선수일지라도 돈을 받는다해서 아무곳에나 나서는것은 아니다.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해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물론 20여년간의 프로야구생활을 하면서 톱스타로 군림해온 張勳이 이만한것쯤은 익히 알고 있을법한 일이다.

그렇다면 張勳이 출연하는 TV영화의 내용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그가 맡은 역할이 어떤것이길래 개운찮은 화제를 피우고 있는 것일까.

張勳이 출연하는 영화는 日本의 TV도오꾜에서 내년 정초를 기해 장장 12시간에 걸처 방영될 사극이다.

日本 소설가 시바·료오따로(司馬遼太郎)가 쓴 「龍馬가 간다」라는 대하소설인데 내용은 도꾸가와(德川)幕府말기의 풍운아 사까모또·료오마(坂本龍馬)의 일생을 그린 것이다.

張勳은 이 영화에서 교오또(京都)의 한 여관에서 왕족 지사들을 박살내는 사무라이(武士) 곤도·이사미(近藤勇)로 등장한다.

그는 몇명의 부하를 이끌고 幕府를 무너뜨리기위해 한창 모의를 하고있는 天皇측근 30여명을 솜씨좋게 단숨에 베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日本의 한 영화잡지는 이 영화를 선전하기 위해 피묻은 張勳의 얼굴을 클로즈업시키고 『필살의 검은 야구방망이와 통한다』라고 제목을 달고있다.

배트를 휘두르는 솜씨와 칼을 휘두르는 솜씨는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인것 같다.

사무라이 영화는 日本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사무라이 영화에서 정의의 검을 휘두르는 주인공은 영웅시되고있다.

張勳이 정의의 검객으로 등장하여 日本관객들로부터 갈채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張勳이 이 영화에서 검객으로 멋진 솜씨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리 탐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龍馬가 간다」라는 소설의 내용을 알고있는 국내 일부의 뜻있는 사람들은 씁쓰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張勳이 맡고 있는 곤도·이사미란 사나이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못마땅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

이 TV영화는 4백50여년간의 장구한 세월을 지배해온 德川幕府를 뒤엎고 天皇이 친정하는 세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쾌남아 사까모또·료오마의 눈부신 활약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풍운의 세상에 나타나 反도꾸가와 세력을 구축하여 정의를 위해 칼을 뺀 사까모또의 얘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곤도·이사미는 이를 저지하는 반대파 두목으로 극중 극히 일부분에 나온다.

TV영화로 자세한 내용을 보면 德川幕府가 그 세력을 영구히 존속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것으로 얘기가 엮어진다.

天皇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제쳐두고 幕府가 천하를 다스리는 체제를 굳히기 위해 별의별 제도를 다 동원하고 있다.

내년 정초에 放映될 12시간 日 TV영화 「龍馬가 간다」 출연

"張勳분위기 「곤도」氣質과 맞아 起用" 괘씸

이와같이 교묘한 제도를 통해 反幕府세력이 움틀수 없도록 그 싹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參勤交代제도란것을 만들어 봉건영주의 정실부인과 그 아들(嫡子)은 반드시 幕府가 있는 에도(江戶·현재의 東京)에 살도록하여 인질로 잡아 두고 봉건영주도 1년간은 에도에서 지나게하고 1년간은 자기 영지에 돌아가 살도록 했다.

정실부인과 嫡子는 항상 에도에 인질로 잡아두어 영주가 자기영지에서 1년간 지낼때라도 엉뚱한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믿을수가 없었던지 봉건영주가 자기 영토에서 세력을 구축할 능력이 없도록 하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했다.

세력을 구축하자면 부를 축적해야만 한다. 그래서 幕府에서는 부를 축적할수 있는 여유를 말살하기 위해 이상야릇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 제도라는것이 한마디로 이상했다. 영주가 에도에 행차할때는 幕府에서 지시하는 격식에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영주의 행차에 따르는 수행원의 수를 정해주고 또 에도까지의 일정을 정해주어 이 규정을 어길때는 엄벌에 처했다.

그래서 영주들이 에도로 향할때는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을 경우는 수백명의 수행원을 정해준 격식에 따라 수행토록했다.

그리고 일정도 어느곳에서 어느곳까지는 며칠만에 가야하고, 어느곳에서는 며칠간을 머물러야 한다는 식으로 여정을 정해 이를 꼭 지키도록 했다.

이때문에 몇명의 수행원으로 말을 달려 2~3일이면 도착할수있는 길을 수백명을 이끌고 2~3개월씩이나 지리한 여행을 해야만했다.

한마디로 길에 돈을 뿌리라는 작전이었다. 그당시 영주들은 幕府로부터 몇천석에서 몇만석, 며 크게는 수십만석의 봉토를 받아 관리했는데 그 봉토의 규모에 따라 행차의 규모를 정해 부를 축적할 여유를 주지않았다.

그래서 수백명씩을 이끌고 영토와 에도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재물을 다 낭비해버린다.

◇타격왕 張勳이 검객으로 변신, 칼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德川幕府는 이런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 세력유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징적인 天皇이 거처하고 있는 교오또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德川幕府는 4백50여년간 존속해왔다.

이럴즈음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다.

美해군제독 페리·캘브레이드·페리가 東印度함대를 이끌고 동경만에 나타난것이다.

동경만에 나타난 그는 항해에 필요한 식량등을 요구하고 항구를 개항할것과 수교를 맺자고 요구한다.

幕府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자, 대포를 펑펑 쏘아대며 협박조로 나왔다.

스팀엔진을 장치한 거대한 배와 함포의 위력에 눌린 幕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수가 없었다.

幕府와 봉건영주들이 힘을 뭉쳐 이 무례한 침입자를 물리쳐야만 할텐데 영주들에게 힘이 남아있을리 없었다.

參勤交代라는 제도의 굴레에 묶여 진이 다 빠져버렸기때문에 그들 영주에겐 침입자에 대항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日 영화雜誌선 피묻은 張勳얼굴 클로즈업

"必殺의 방망이와 通한다"

결국 갖은 술수를 다 쓰면서 오랜기간 세력을 유지해온 幕府도 동경만에 나타난 배 한 척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이런 꼴을 보게 되자 백성들의 여론이 이곳저곳에서 거세게 일었다.

외래의 침입에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은 병력을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력양성을 소홀히 한 것은 參勤交代제도등으로 영주들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같은 여론이 幕府에 건의되었고, 美함대의 출현에 혼이난 幕府는 參勤交代제도를 철폐한다.

이 때부터 幕府에 눌려만 지냈던 각 영주들은 자체 실력을 쌓게 되었고 天皇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勤王사상이 선각자들에 의해 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勤王사상을 가진 낭인들이 天皇이 있는 교오또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親幕府파와 勤王파간에 피를 보는 혈투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교오또의 치안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이때 곤도·이사미가 등장한다. 곤도는 에도 근처에있는 농촌에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당시 농민은 천민으로 무사계급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

곤도는 이러한 천민으로 평생을 보낼수가 없어 에도에 올라와 어느 이름없는 검술도장에서 검술을 익히고 있었다.

그가 속해있는 도장이 워낙 시시해 곤도는 고향에 내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검술을 가르치며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이럴때 幕府에서 교오또의 치안확보를 위해 치안대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곤도는 부하 3, 4명을 이끌고 교또에 나타났다.

농군집안 출신이지만 곤도에게 특출한 데가 있었다. 그 치안대에 들어가자 마자 그는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

그는 신센구미(新撰組)란 조직을 만들어 대장노릇을 하는데 엄하기가 짝이 없었다.

신센구미라면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는 부하들을 철저히 다스렸고 교오또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실력을 보였다.

天皇을 흠모하여 모여든 勤王派들에게 신센구미가 바로 적이었다. 신센구미를 이끄는 곤도야말로 최대의 적이었다.

이래서 어느날 여름 전국에서 모인 勤王파 주요인물들이 이께다야(池田屋)란 여관에 모여 신센구미를 타도하고 天皇의 지위를 복귀시키자는 모의를 하는데, 이를 눈치챈 곤도는 부하들을 이끌고 여관에 쳐들어가 勤王파들을 모두 베어 버린다.

이 사건이 바로 1864년6월에 일어났던 일이며 그후 1868년9월 德川幕府는 종막을 고하고 明治시대로 이어진다.

張勳은 이러한 줄거리로 엮어지는 영화에서 勤王파 30여명을 무참하게 베어버리는 역할로 등장한다.

「곤도」는 賤民출신으로 劍術배워 改革派 30여명 斬首

眞實한 愛國者 張勳이미지에 損傷우려

德川幕府가 무너지고, 明治시대가 막을 올리고 그 역사적인 평가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평가하는데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張勳의 이미지는 손상될수도 있는 일이다.

明治이후 그들의 史觀에따르면 곤도란 사나이는 악한으로 …중의 악한으로 평가되고있다. 한마디로 곤도라면 「나쁜놈」으로 이미지가 박혀있다.

우리들이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張勳이 이러한 역할로 등장하는가 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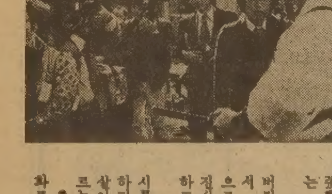
이 영화를 기획하고 있던 TV도오꾜가 張勳을 끌어들이게 된것은 곤도의 거친 무사기질과 張勳의 분위기가 딱 들어맞기때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張勳의 출연은 그의 오랜친구인 60년대 日本사극의 간판스타 요로즈야·긴노스께(萬屋錦之介)에 의해 주선되었다는 것이다.

방송국으로부터 張勳을 기용할뜻을 전해들은 요로즈야는 자기가 이일을 떠맡겠다고 자청했고 그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張勳은 즉석에서 쾌히 응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張勳의 분위기가 곤도라는 극중인물과 썩 잘 어울려 기용했다는 그들의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얄궂기 짝이없는일이다.

이말은 그들이 보기에는 張勳이 야구스타임에는 분명하고 말썽꾸러기라는 말과 통한다.


◇日本武士가된 張勳이 촬영현장에서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張勳은 그들과는 정반대이기때문에 그들의 처사가 괘씸하고 張勳의 행동이 좀 서운하다는 얘기가 된다.

『야구를 하기위해 국적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꿋꿋이 한국인임을 자랑으로 삼아온 張勳을 우리는 진실한 애국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센징」이란 멸시와 질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굴하지않고 사나이답게 인생을 살아온 張勳의 성장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2년전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터질듯한 이 가슴을」 시사회에 참석한후 張勳이 한말이 기억난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눈물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의 멸시와 모멸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사내자식이 눈물을 보이면 안된다는것을 머리속 깊숙이 새겨주신 어머님 말씀이 나로하여금 설장해서도 오기는 부릴망정 눈물은 결코 흘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저녁에는 많이 울고 많은 눈물을 흘렸읍니다. 정말 울지않을수 없었어요.』

「강철심장」 「오기로 다져진 거만한 한국인」으로 日本사회에 알려진 투지의 사나이 張勳도 쓰라린 과거와 영광의 오늘을 드라마로 다듬은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울지 않을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張勳의 눈물에 표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 張勳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알고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를 우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뜻에서 張勳의 이번 영화출연은 책이 그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外紙에서〉

구독신청 725-5566 725-6634
배달사고 724-6635 724-7397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메아리

自由의끝을 넘어

西베를린에 가 본 사람이면 기억이 날것이다. 베를린市의 허리를 자르고 있는 東獨측의 장벽, 그 장벽 가까이에 西베를린측에서 전망대를 군군데 높이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西베를린을 찾은 사람들이 이 전망대에 올라 장벽너머 東베를린과 東獨을 「관광」할수 있게 하였다. 그전망대중의 하나 — 東베를린쪽의 포츠담廣場이 한눈아래 보이고 廣場북쪽에 히틀러의 벙커를 아직도 구경할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바로 눈앞의 장벽을 보면 그 벽면에 붉은 페인트로 누가가 낙서를 해 놓은 것이 눈에 든다. 아무도 지우지 않고있는 낙서다. 『여기서 自由는 끝난다』라는 팻귀이다.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은 11일 이장벽을 넘어 베를린 북쪽의 베르벨린湖畔에서 東獨의 국가평의회 의장 에리히·호네커를 만나러갔다. 11년만의 會談이다. 70년3월 에르푸르트에서, 그리고 5월 카셀에서 東·西獨의 頂上이 만난이후 처음 갖게 되는 兩獨간의 交歡이다.

아직도 서독사람들은 東獨에 자유가없다고 믿고 있다. 동독사람들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언젠가 西獨의 한 지도층인사는 東獨에 대해 『自由가 없고 民主的인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곳에서 獨逸의 正統을 찾을수는 없다 따라서 東獨에는 正統性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정통성은 西獨에만 있다는 단언이다.

그러나 兩獨관계는 꽤듯한 면도있다. 72년에맺은 東西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基本條約때문이지만, 이속에서는 두 독일이 「동등자격의 원칙」을 바탕으로 언제나 서로 「선린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兩獨관계가 전제되어 東·西獨사이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두分斷지역간에 스스럼없이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은 우리로서 부러운 일이라고 밖에 더 표현 할말이 없다.

東·西獨間의交易규모는 양쪽을 합해 작년에만도 80억 마르크, 전화는 2백만통, 사람은 72년이후 1억인이 장벽을 넘나들었다. 상호간에 「에너지협정」을 맺어 東獨은 80~85년간에 西獨한테서 원유 1천만~1천2백만톤을 사기로 하고 西獨은 東獨으로부터 그 원유를 精製한 제품 1백80만~2백20만톤을 사주기로하였다. 東獨이 만들어 서방시장에 판매하는 섬유·직물류중 75%를 서독이 사주었다. 東獨은 西獨에서 무연탄과 코크스를 사들이고, 西獨은 그대신 東獨에서 褐炭을 사들였다. 東獨이 수출하는 곡물류나 식육은 그 전량을 西獨이 사준다. 北의 석탄과 南의 공산품이 오고 갈날은 언제쯤 될까. 여기 또하나 「자유가 끝나는곳」에서서 넘어다본다.

한국일보 詩壇

裸木

柳謹助

쉴 짬도 없이 울고 있다
내 보잘 것 없던 생애를
네 純白의 그늘로 바꿔 가지면서
잠시
街路樹의 잎 잎에 매달렸던
지난, 지난 여름의
식지 않은
生命의 熱氣를 다시 생각해 본다.
흐린날
친구의 蒼跡처럼
니 또한 물기 흐른 피부에
아침 한 때의 햇빛을
灼熱하는 생명의 衝擊으로 바꿔 가지면서
이미 떠난 자의 不在를 號哭하는가.
시방
喜悲가 엇갈린
코리아의 아침에
사랑의 긴 겨울을 위하여
아니면
다시 忍從의 먼 길을 준비하는가.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MAY I SEE YOUR DRIVERS LICNSE, PLEASE?

시카고 미시간 애비뉴에서 있었던 일이다。1차선 우회로에서 잘못알고 2차선으로 우회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렸다。대뜸「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라고하였다。

필자에게는 마침 이미 받은 교통위반 티킷이 있었는지라 머뭇거리며 내놓지 않으려다 하도 다그쳐묻는 바람에 ticket을 내놓자 그것을 본 경찰관은「내 마음 변하기전에 빨리 사라져라」Get out of here before I change my mind. 라고하여 서모면한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나오다가나 중에는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웃음도 나왔지만 재수가좋았던 것만은 사실이다。각설하고 May I~로 시작되는 표현은 많이있다。「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요」May I see your I.D. card, please?이때 I.D. card는 identification card(신분증)의 준말이다。

A :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please?
B : Officer, What did I do wrong?
A : You went through the stop sign.
B : I'm sorry, I didn't see a stop sign at the corner.
A : There is a four-way stop at that intersection.
B : I didn't see it.
A :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요。
B : 경찰관, 제가 뭐 잘못했나요?
A : 정지사인에 지나갔읍니다。
B : 미안합니다。구석에 있는 정지사인을 못봤읍니다。
A : 그교차로에는 네군데에 스톱사인이 있읍니다。
B : 못봤어요。

※주license: 면허증 go through: ~을 통과하다。four-way stop: 네거리에 모두 스톱사인이 있는것。

HAVE YOU WORKED THERE LONG?

「직업이 무엇인가요」May I ask what business you're in?「KAL에 근무합니다」I work at KAL. 라고 했을때「거기서 근무하신지가 오래 됐읍니까?」Have you worked there long? 이와같이 현재완료(Have+과거분사)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수 있다。

「그녀를 알고있죠」I know her.「그녀를 아신지가 오래 되세요?」Have you known her long? 또한「미국에 사신지가 오래 되세요?」Have you lived in America long? 이같이 물어왔을때「네。십년이 조금 넘었읍니다」이와같이「조금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경우는 a little over를 사용하여 Yes, a little over ten years.라고 하면 된다。

A : Have you worked there long?
B : Yes, more than five years.
A : How large is the company?
B : We have about 300 employees.
A : Do you have good employee benefits?
B : Yes. we have excellent retirement and investment plans.
A : 거기서 근무 하신지가 오래 됐읍니까?
B : 네, 5년이상이 됩니다。
A :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큽니까?
B : 약300명의 종업원이있읍니다。
A : 종업원 사회보장 제도가 잘돼 있읍니까?
B : 네, 퇴직금과 투자주 제도가 잘되어 있읍니다。

※주employee : 고용인 employer : 고용주 employee benefits : 종업원에 대한 혜택retirement plans : 퇴직금 제도 investment plans : 주식이나 투자형식의 혜택을 주는제도

본 칼란 담당「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3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⑭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지난줄거리

김회장 일행을 추적하는 차량을 확인한 넙치가 충찬에게 작전지시를 했다。충찬은 차에서 뛰어내려 세 대를 폭약으로 막은 뒤 황변호사가 갇혀 있는 별장으로 가며 이 작전은 결례의 지시보다는 곰배의 복수심 때문에 이루어진것을 알았다。황변호사를 구출한 충찬은 김갑산 회장집으로 달려간다。곰배의 억울한 사연을 풀기 위한 증오심으로 속력을 높인다。

김회장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안마당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었다。김갑산회장집 대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란 평소에 없던 일이었다。

경비원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는 빨리 들어가라는 시늉을 했다。넙치형이 몰고 온 차가 눈에 띄어서 안심이 되었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궁금했다。

김회장 방엔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김회장은 소파에 깊숙하게 기대 앉은채 내 손목을 잡았다。넙치 형이 그 옆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형、별일 없었어요?』

『놓쳤어。』

넙치 형이 이렇게 말하고 턱짓으로 둘러 선 사람들을 가리켰다。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이 무섭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자식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회장님、황변호사를 무사히 구출했읍니다。애들도 다섯 놈이나 잡아왔어요。이제 안심해도 돼요。』

『수고했네。자네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정말 고맙네。』

김회장은 힘없이 이렇게 말했다。나는 그런 김회장의 손을 꽉 쥐었다。

『이 자리에서 밝히죠。장본인도 저기 있고 하니까요。』

나는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을 가리켰다。두 사람의 표정이 변했다。

『그만 두게。』

김회장이 화난 듯이 말했다。

『그만두다뇨。이럴 수가 있읍니까? 사위하고 배다른 자식이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두란 말입니까?』

나도 지지않고 말대꾸를 했다。아무리 곰배 때문에 미움이 가셔지지 않는 놈이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만두래도。무사했으면 됐잖아。』

김회장이 내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저 친구들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유서도 조작했어요。황변호사에게 칼을 대고 유서를 바꿔치게 했읍니다。저 녀석들을 족치면 다 나오게 됩니다。뭐가 두려워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이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누굴 어떻게 보구 이래。무슨 증거로 그 따위 헛소리를 하는 건가。감히 어느 앞이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 돈벌레들 같으니라구。증거는 얼마든지 있어 이 놈들아。너희들이 사람새끼냐? 늑대도 그렇게 철면피하진 않아。이놈들아。』

기획실장을 올려 찼다。카피트 위에 벌렁 자빠졌다。몸을 피하는 비서실장의 옆구리를 가격했다。기획실장 위로 나가 떨어졌다。나는 분에 못이겨 두 사내를 사정없이 갈겼다。

김회장은 눈을 감고 고개만 흔들었다。아무도 말리지 않았다。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는것 같았다。

『그만해라。이렇게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넙치 형이 내 어깨를 잡았다。

『형、이거 놔요。이 새끼들은 죽어도 싼 놈들예요。저희 부모를 죽이려던 흉악한 놈들이라구요。증거는 수두룩해요。이것들을 패죽여야 해요。』

『그건 다 알아。회장님도 알고 계셔。』

『그런데 왜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뭐가 무서워요。무섭고 두려운거 있으면 말해요。내가 다 때려부술테니까。』

넙치 형은 나를 소퍼에 강제로 밀어 앉혔다。그때까지 김갑산 회장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카피트바닥에 누워 있었다。마누라인 듯한 여자 두 사람이 눈물을 내려 깔고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변명하거나 말할 기회를 주지않고 두들겨 팼기 때문에 내 가슴은 더 답답했다。

『이봐、이 천하에 죽일 놈들을 왜 지게 내버려 두지않고 왜 겁주거려?』

두 여자가 나를 올려다 보고는 말없이 일어났다。

『참으쇼。회장님께서 앉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전무가 이렇게 말했다。나는 발길로 그를 걷어찼다。

돈벌레 새끼들아、늑대낯짝도 그렇게는 두껍지 않아
평생먹고 살수있게 조치해 놓았으니 싫지는 않겠지

『아가리 닥쳐。너도 한패지。이 새끼야 날 속일 생각 말아。』

전무가 나뒹군 채 엉금엉금 기어서 사람들 뒤쪽으로 갔다。김회장이 눈을 떴다。무슨 말인가 할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황변호사 이리 오게。』

황변호사가 절룩거리며 걸어왔다。

『내가 말한대로 이 자리에서 유언장 다시 만들게。』

『알겠읍니다。』

황변호사는 가방을 열고 아까처럼 다시 준비를 했다。

『장군하고 이리 들어오게。』

김회장이 안방을 가리켰다。나와 넙치형이 따라 들어갔다。김회장은 보료위에 앉아서 담배를 빼물었다。

『없었던 일로 해줄수 있잖나?』

『말같은 소릴 하십쇼。』

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래、말같은 소린 아냐。그러나 내 신세가 돼보면 이런 것도 말이 된다는 걸 알 걸세。』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무슨 약점 잡히신 겁니까?』

『그런 건 없네。』

『그렇다면 왜 이러시는 겁니까。회장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자식입니까? 그런 자식을 믿고 살아있다는 게 원통하지도 않단 말입니까。』

『첫째는 내가 부끄럽네。둘째는 내 자식일세。셋째는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네。그게 이유일세。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말일세。』

나는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보통 늙은이가 아닌 것은 알았지만 너무나 솔직하게 털어놓는 데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재산을 분배하고 조용한 데 가서 쉴 생각일세。자네들하고 말일세。』

『우리요?』

나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이렇게 반문했다。

『평생 살수 있는 걸 만들어 놨네。자네들도 하고 싶은일 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싫은가?』

『싫은 건 아닙니다만… 사내자식이 뭔가 해야지요。』

『누가 하지말랬나。다만 내 곁에 나 죽을 때까지만 내 옆에 있어 달라 이거지。』

『비서실장하고 기획실장한테도 분배하는 겁니까?』

『개들도 내 자식 아닌가。』

『딱하십니다。』

『자네 눈에도 내가 딱해 보이는 모양이구만。』

나는 피식 웃었다。김회장이 나와 넙치 형에게 하얀 사각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성의일세。많지는 않지만 그거면 자네들이 뭐든 해볼수는 있을 걸세。』

『이게 얼맙니까?』

내가 물었다。김회장이 웃었다。인자한 할아버지같은 웃음이었다。

『웬만한 사업자금은 될 걸세。』

넙치 형이 봉투를 밀어내놓고 말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그러니 이건 넣어주십시오。』

김회장이 또 웃었다。

『자네들 마음 알아。그러나 이건 내가 할 일일세。나 좀 편히 죽게 해주게나。』

나는 그 순간에 곰배 얼굴이 떠올랐다。이 정도의 돈으로 곰배가 잃었던 공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장님、그룹 산하의 T공장、사려면 얼마나 줘야 합니까?』

『그건 왜 묻나? 그게 욕심 나는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상속한 거라네。』

『꼭 달라고 해도 말입니까?』

『이미 늦었어。』

『저 혹시 그 T공장 인수하실때 기억 나십니까?』

『그 공장 본래 주인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네。젊은 사람이 고전한다고 해서 인수하라고 했지。손해는 봤겠지만 적당한 값은 쳐줬을 걸세。』

『그렇지 않습니다。그 공장 주인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알거지 신세입니다。합자형식으로 했다가 한푼 못받고 쫓겨났읍니다。그때 인수 책임자는 누굽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네。자네가 이미 실컷 매질했잖는가。』

『그럼 기획실장 말입니까?』

김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그런 인수문제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곰배를 알거지 만든게 확실한것 같았다。

『그 공장 돌려주실 수 없나요?』

『만약 인수할 때 억울하게 했다면 보상은 해줄수 있지만 공장을 되돌려 줄순 없지。시설비며 확충사업으로 몇십곱은 들어 갔을테니까。』

『그 공장 상속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녀석일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주신 돈은 그 사람을 주겠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사실은、아까 회장님을 쫓아온 녀석들은 그 친구의 부하들입니다。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이 좋은 조건으로 그들을 매수한 겁니다。그 친구는 손 씻고 착하게 살고 있었지만 회장님한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읍니다。그래서 일이 더 악착같이 꼬인 것이지요。회장님이 모르시는 일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친구는 회장님이 그런거라고 믿고 있읍니다。』

『알겠네。내가 사실을 조사해본 뒤에 충분하게 보상하도록 하겠네。』

그때 황변호사가 복사한 서류와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들어왔다。김회장이 확인을 하고 다시 도장을 찍었다。

『황변호사가 가족들 모여놓고 직접 발표를 하게。한부씩 사본을 만들어서 돌려보게 해주고。』

『알았읍니다。』

황변호사가 나갔다。김회장이 넙치에게 차고 있던 시계를 내주었다。

『내가 아끼는 시계일세。잘 간직해주게나。』

늑골이 나가고 무릎뼈가 금갔다고 죽지는 않을거야
우리의 方式대로 한판붙어 이긴놈의 말 듣기로 하자

넙치 형이 절을 하고 받았다。

『이건 자네가 간직해주게。』

김회장은 반지를 빼서 내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나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았다。

『그만 가겠읍니다。내일 다시 들르겠읍니다。』

『그렇게 하게。고생 많았네。』

나와 넙치 형은 밖으로 나왔다。의사와 간호원들의 모습이 보였다。아무래도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내가 조금 심했던 모양이다。』

『저런 새끼는 좀 당해야 돼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현관쪽으로 걸어가며 비서실 직원에게 물었다。

『늑골이 나가고 무릎뼈가 금갔답니다。』

『둘 다 말야?』

『비서실장님이 더 심해요。』

『뒈지진 않을 거야。서너달 고생 좀 하겠지。』

우리는 밖으로 나와 랜드 크루저가 기다리고 있는 마당으로 갔다。녀석이 하품을 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곰배 형님한테 간다고 전화 했어요。』

『그래 가자。형도 같이 갈래요?』

『나도 오랜만이니까 얼굴이나 보러가자。』

녀석은 신바람이 났는지 속력을 높였다。계속 질주하면서 일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모든 게 잘 됐으니까 걱정말고 가기나 해。』

속도계의 바늘이 1백40㎞를 가리키고 있었다。

응암동 산꼭대기의 연립주택 앞에서 내렸다。

『저、끝 방입니다。』

녀석이 가리킨 곳은 초라하게 생긴 방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소주병 옆에 앉아 있던 곰배가 벌떡 일어났다。

『기다렸다。』

그리고는 넙치 형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형、오랜만에 뵙습니다。죄송합니다。』

『넙치 형이 너 보고싶대서 같이 왔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다。곰배는 내게도 손을 내밀었다。손바닥이 까칠했다。

『긴 얘기 말자。애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이건 김갑산 회장이 내놓는 거다。김회장은 네가 그렇게 당한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그 늙은 여우가 그럴리 없단 말이다。난 돈이 필요한 놈이 아냐。돈 벌려면 벌써 벌었어。난 복수가 필요한 놈야。』

곰배가 소리를 질렀다。나는 그런 곰배의 어깨를 쥐어 잡았다。

『안다。네 맘 모르면 내가 여기 오질않았어。그 늙은이 그래도 사람 되려고 악 쓰더라。그게 가상한 일이 아니고 뭐냐。』

『나를 달래려고 하지마。난 해내고 말테니까。』

『이 새끼가 내 말도 못믿는구나。임마。나도 너 이상 성질대로 사는 놈야。내가 그 늙은이한테 이걸 받은 건 그 늙은이가 그래도 사람같아서 받았어。넙치 형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이 온 거야 임마。』

곰배가 꿈틀거렸다。

『너 내말 안들으면 그냥 안둔다。』

내가 소리 질렀다。곰배가 피식 웃었다。

『한판 붙자。네 실력 안본지도 오래됐다。』

『그럼 이기는 놈 말듣기로 할래?』

『그게 우리 방식이지。』

우리는 뒷산으로 올라갔다。넙치형이 승부를 뻔히 안다는 듯이 웃으며 따라 왔다。우리들의 과거를、우리들의 의리와 사내다움을 아는 넙치 형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둘이 악수나 하고 붙어라。』

넓은 공터가 나오자 넙치 형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줬다。곰배와 나는 악수를 하고 웃옷을 벗었다。

달빛이 밝았다。넙치 형이 손을 내렸다。우리는 한발짝씩 다가섰다。녀석의 자태는 예나 지금이나 빈틈이 없었다。

서너번 자리를 바꿔잡은 우리는 공중으로 떴다。그리고 뒤돌아서서 다시 겨루었다。

곰배가 계곡으로 또르르 굴렀다。내가 뒤쫓아 가서 멱살을 움켜 쥐었다。곰배가 이빨을 앙다물고 말했다。

『내가 졌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다。넙치 형이 안주머니에서 사각봉투를 내밀었다。곰배가 넙치 형을 쏘아봤다。

『나하고 한판 더 붙자。이번에도 이긴 사람 맘대로다。』

『난、형한텐 져요。』

『그럼 됐다。이것도 받아라。김회장이 너 주라고 한 거니까。』

곰배가 나와 넙치 형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곰배의 울음소리가 메아리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곰배 손에 들려진 하얀 사각봉투 두개가 달빛을 받아 유난히 하얗게 보였다。

밤새 마신 술이 덜깬 넙치형과 나는 곰배네 집에서 나왔다。

김갑산회장은 이미 기자회견을 끝내고 짐을 싸고 있었다。

『회장님、작별인사하러 왔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고기는 물가에서 놀아야잖읍니까。』

『가끔 뭍에 올라앉아 세상 구경도 해야잖나 이 사람아。』

『돈 떨어지면 용돈 타러 놀러가겠나 해주세요。』

『그 돈 벌써 다 썼나?』

『싸움 한판 하고 날렸읍니다。엊저녁 달빛 하나는 기차게 밝았읍니다。』

『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T공장 보상금 나오면 저희들이 근사하게 한잔 사겠읍니다。』

『먹고 사는 건 걱정없게 해준다고 약속했잖는가。이 늙은이 믿어보게나。』

김회장은 짐 꾸리는 걸 팽개쳐두고 몇번이나 사정을 했다。같이 가서 일년 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충분한 대가를 해주겠다고 했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사내녀석들에게 회장님 심심풀이나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회장은 넙치 형을 데리고 방에 들어갔다。나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한참만에 나온 김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자네들、내 친구라는 거 잊어선 안되네。그건 약속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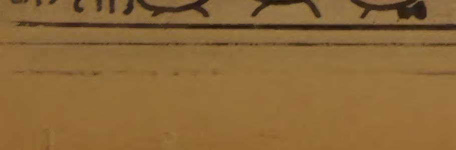
『거럼、거럼。김갑산 너는 내 친구다。』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짐 싸던 일꾼들과 가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장충찬、넙치、너희들은 내 친구다。』

김회장이 맞받아 소리쳤다。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었다。김회장 얼굴에 행복이 충만되는 걸 나는 그 순간에 느꼈다。넙치 형도 나도 그 같은 느낌이었다。〈다음주에 계속〉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416) 533-2361~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言論

서울大田 高速電鐵 88年이전完工

「新國際공항」立地 서울~大田중간에

남한강 舟運개발계획 妥當性조사·京仁운하는 再檢討
釜山 成長관리都市로·成長거점도시에 南原·春川추가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 전설키로한 국제공항의 立地를 서울-大田간 중간지점으로 이전, 명칭도 신국제공항으로 바꾸어 오는 86년이후 전설키로하고 서울-大田간 고속전철건설은 88서울올림픽에 대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시작되는 5차 5개년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착공, 88년까지 완공키로했다。

또한 南漢江의 계단식댐건설에의한 舟運개발계획은 내년부터83년까지타당성조사를 한다음 경제성이있다고 판단되면 86년이후 건설사업을추진키로하고 기존 京仁운하계획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하오 열린 제20차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는 건설부가 제출한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案)을심의, 이밖에 관계부처의 수정요청에따라 釜山을 수도권과같은 개발억제대상대도시에서분리、성장관리도시로 조정하고 82년부터 91년까지 10개년계획기간중의인구억제선도 당초의 3백90만명에서 4백20만명으로 확대하도록의결했다。

86년이후 집중육성키로한 제2차 성장거점 도시는 당초 原州、江陵、淸州、天安、全州、木浦、順天、安東、晋州、濟州등 10개도시로했으나 春川및 南原을추가、12개도시로늘리고 錦江의하구언 건설사업도 오는86년이전에 완공하도록 확정했다。

또 加露林만의 조력발전소 건설은 87년이후로 연기하고 91년이후의 물동량증가에 대비、安井·木浦·光陽·昌原등에 항구건설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고급두뇌의 지방분산을유도하기위해 오는83년까지 제정할 성장거점도시개발촉진법에 교수정년제의 차등조항을 규정、인구분산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꾀하기로했다。

이밖에 大邱-安東간、全州-光昌간고속도로건설계획은 일단취소하고 서울-大田간 고속도로확장계획도 서울-天安간으로 줄였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에梨木·宋孔里、화력발전소건설후보지에는 加德·平川을각각추가하고、양수발전소후보지로晋州·醴泉을추가하는 외에 당초후보지로 선정됐던 陜川은 제외키로했다。

檢察 대폭人事예상

전격적인 總長更迭계기로

8回이전 出身 퇴진등
高檢長급 4명辭表 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경질인사는 검찰내부에 큰 충격파를 불러일으켰다。신임 검찰총장에 고시8회출신의 鄭致根 釜山지검장이 기용된것은 전례적인 개편의차원을 벗어난 일대개혁인사로 받아들여지고있으며 鄭총장의 취임에 이어 고시8회출신들의 검찰수뇌진 17명에대한 인사와 이에따른 후속인사파동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관련기사11면

간부17명포함 곧斷行

鄭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전해지자 고시8회이상의 선배들인 大邱고검의 朴駿陽검사장(고시5회) 서울고검 李栢柱검사장(4회) 光州고검 柳泰善검사장(3회) 鄭明來법무연수원장(6회) 등4명의 검찰수뇌진이 15일하오 사표를제출했다。

이번 검찰총장의경질은 지난3월 검찰대폭인사에 이어 새시대에맞는 새로운 검찰체제를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것으로 평가되고있으며 앞으로 검찰체제는 李鐘元법무부장관(변시3회)을정점으로 검찰수뇌 모두가 고시8회 출신이하로 정비되게된다。

신임鄭총장의 기용은 그의 치밀하고 신중한 업무추진력에다 서울지검과 대검의 公安부장을역임한 능력있는 공安通이라는 사실이 높이인정된것같다。

한편 鄭致根 신임검찰총장의 취임식은 17일상오에 있을예정이다。

◇鄭致根검찰총장

檢察總長에 鄭致根씨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의결을거쳐 검찰총장에 鄭致根釜山지방검찰청검사장을 임명했다。 ★얼굴2면

許亨九前검찰총장은 의원면직됐다。

◇鄭신임총장略歷 ▲慶南山淸출신·50세▲서울大法大卒▲釜山地檢검사▲서울地檢部長검사▲春川地檢검사장▲大檢공안부장▲釜山地檢검사장

國家위해 성실奉仕
신임 鄭檢察總長

【釜山=聯】鄭致根신임검찰총장은 16일낮『검사와 일반직원들이 잘도와주어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자리를 떠나게 된것을 감사한다』고 밝히고『재임기간동안 고향의 어른들 선배 친구 후배들의 도움이컸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의껏 검찰을위해 더크게는 국가를 위해 일할 각오』라고 밝힌 鄭총장은후임인사등에 대해서는 일체언급하지 않았다。

부산지검장재임 7개월 17일만에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鄭총장은 이날하오 3시30분 비행기편으로 상경했다。

장성3명 大將승진
全대통령、申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16일상오 靑瓦臺에서 陸軍의 黃永時신임 참모총장과 蘇俊烈참모차장으로부터 補職신고를 받았다。

全대통령은 또 육군大將으로 진급한 鄭鎬溶 金潤鎬 朴熙榮장군으로부터 진급신고를 받고 계급장을 달아주었다。〈사진〉

이 자리에는 周永福국방장관이 배석했다。

波軍部、모든勞組 不法化

5천명逮捕 곳곳서 流血충돌

【빈15日UPI=聯】폴란드의21人救國軍事評議會는 계엄선포 3일째인 15일▲휴교▲수백개 공장에의 군대투입▲週6日 근무제로의 환원등 국민들의 생활전반을 제약하는 70개항이상의 포고령을 발표했다。주요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기사3면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통금실시 ▲수백개소의 공장·철강공장및 조선소의『군사화』▲각급학교의 휴교조치와 이에따른 학생들의 무기방학실시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국내여행도 1회에 48시간으로 제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휘발유판매금지▲모든 勞組의 不法化 ▲지방의 라디오 TV방송을 중단하고 국영채널프로그램도 단축▲우편 전화및 통신망폐쇄▲집회·시위·파업·스포츠행사및 예술행사의 일체금지▲항의주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대한 刑罰의 엄격한 적용 ▲12세이상 모든 국민의신분증 항시 휴대 ▲농민들에게는 생산물을국가에 수납하라는 명령이내려질수 있으며 식품배급제를 실시할수 있음

구독신청 588·2861

"改閣 당분간 없다" 南總理

南悳祐 국무총리는 16일상오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지난며칠동안 항간에 改閣소문이 있었으나 各部장관은 소문에 동요됨없이 업무수행에 만전을기해달라』고 말해 당분간 改閣이없을것임을 밝혔다。

南총리는 15일상오 靑瓦臺를 방문、全斗煥 대통령과 면담하는자리에서 당분간 改閣이 없을것이라는 언질을받고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南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현재 국제정세와 안보문제등 국내외의 여러문제가山積돼있다』고 지적、『年內에 마무리지을일은 마무리하고 年初사업도 미리준비토록 해야할것』이라고 지시했다고 李光杓문공장관이 밝혔다。

蘇、軍事개입 示唆

"要請있으면 支援"…輸送機도착

【모스크바15日UPI=聯】소련은 폴란드당국이 계엄선포에 대한 모든 국내반발과 저항을 제압하지 못하고 소련의 도움을 요청할경우 소련군을 폴란드에 파견、폴란드정부를 지원할것이라고 한 소련관리가 15일 말함으로써 소련의 폴란드군사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빈(오스트리아)16日UPI=聯】소련수송기들이 16일 폴란드에 착륙했으며 폴란드군탱크들이 폴란드자유노조 요새인 그다니스크로 진군했다고 바르샤바에서들어온 보도들은 전했다。폴란드로부터 전해진바에따르면 바르샤바조약군 사령관인 빅토르·쿨리코프소련원수가 지난11일부터 바르샤바에 체류했다고 외교관들은말했으나 공식확인되지는않았다。

바웬사 協商중

유럽波大使들 밝혀

【마드리드15日AP=聯】폴란드의 리스본 파리주재 대사들은 15일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폴란드계엄당국과의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됐다는 스톡홀름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바웬사는 폴란드사태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당국과 여전히 협상중이라고말했다。

포르투갈주재 에우게니우스·스칠레제르대사와 프랑스주재 에우게니우스·쿨라가대사는 이날 리스본에서 각각 그와같이 부인했다。

폴란드계엄당국도 바웬사가 계엄이 선포된 이후 줄곧 바르샤바교외의 모처에서 2명의 각료들과 폴란드사태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중이라고 말해왔다。

레이건、蘇개입警告

【워싱턴15日UPI=聯】레이건美대통령은 15일 만약소련이 폴란드에 개입할 경우 사태는『매우 심각해질것』이라고 경고했다。

◇新·舊 육군參謀總長 이·취임식에서 지휘권이양을 끝내고 열병을하고있는 신구 육군참모총장黃永時대장㊧과 李熺性대장㊨。

陸參總長 黃永時대장

정부는 李熺性육군참모총장후임으로 黃永時육군대장을 임명발령했다。★얼굴2면

◇黃참모총장略歷 ▲慶北榮州출신·56세 ▲陸士10期卒(50年) ▲美초·고등군사반졸업 ▲국방대학원졸 ▲인대장 ▲首警司참모장 ▲駐越野戰司참모장 ▲사단장 ▲3사관학교교장▲군단장▲참모차장 ▲군사령관

"자기희생 자세로 國家保衛에 앞장"
黃總長 취임사

전육군참모총장 李熺性대장과 신임 육군참모총장 黃永時대장의 이·취임식이 16일하오2시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周永福국방부장관을 비롯, 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역대육군참모총장및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입석상관에 대한경례·개식사·국기에대한 경례·명령낭독에 이어 육군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참모총장기를 李대장이 周국방장관에게 넘겼고 周장관은 이를 신임 黃참모총장에게 넘겨주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신임黃참모총장은 취임사를 통해『전 육군장병은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다는 각오하에 철저한 자기희생의 자세로 국가보위와 민족의생존권수호에 앞장서자』고 말하고『절대적인 애국철학을 바탕으로하여 군은 민족정신개조의 용광로가되어 새시대 새역사 창조와 세계속으로의 웅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波, 外國人出國요청

【뮌헨15日AP=聯】폴란드공산당당국은 폴란드거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신변안전을 보장할수없다는 이유로 폴란드를 떠날것을요청했다고 서독의 바이에른주 경찰당국이 15일 밝혔다。

경찰은 폴란드로부터 서독에 도착하고있는 여행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폴란드내에서는 이사실을 확인하는보도가 아직 나오지않고있다。

폴란드와 외부간의 통신은 계엄령선포이후 모두 두절됐으며 폴란드국경도 극소수의 사람들외에는 통행이 금지되어있다。

社会漫評

世界의 耳目…

고있다。

地平線

대학입시가 사실상 끝난 高3아이가 빈가방을들고 등교한다。책도안넣고 빈가방은 왜 들고 가느냐고 무심코 물었다。〈선생님이 빈가방이라도 들고와야한다고 말해요〉ㅡ교육청에서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런다는 것이다。어처구니가 없어 절로 쓴 웃음을 지을수 밖에없었다。▼고교교육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서 뭘까 생각해본다。하나 봇물이 터지듯 高3생활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매일같이 친구와 어울린다。고전도 읽고 싶어하고 미팅도하며 한범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희망에 찬 새봄을 한 겨울에 맞은셈이다。학교측 설명은 그렇듯하다。그동안 입시공부에 시달려온 학생들에게 德性보충수업도 하고 소홀했던 情操、敎養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성교육에 예절 강연도 듣고、영화구경에 박물관 나들이 마저 하며、선생님과함께 농구경기를 벌이기도 하니 정말 재미있는 한때가 아니냐는 것이다。그렇지는 하나 그러면 빈 책가방은 왜들고가야 하는지…그 이유만은 풀리지를 않는다。▼너무 죄인 高3교육의 虛點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떠오르는것을 어쩔수가 없다。우울하고 신경질이던 아이들이 언제그랬더냐는 식으로 高3병을 말끔히 씻어버리며 밝고 해맑은웃음을 되찾은모습을 볼때『그 지긋지긋한 入試病이 없으면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하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오늘 서울지역의 82학년도 고교신입생선발 고사가 일제히 실시된다。고생문을 두드리는 고교연합고사는 대학입시와 달리 경쟁률이 낮고 긴장감도 덜하지만 애처로운 생각만은 없앨수가 없다。이제부터 생존경쟁의 문턱에 서게되고 대학입시를 향해 3년동안 뛰어야하기 때문이다。시간만나면 잠드는 高3병、「너는 高3이니까」하는부모들의 채찍질、자기스스로도 어떻게할수 없는 공부만의 나날이 또 기다리고 있는것이다。▼말로는全人교육이지 한점이라도 더 따야 좋은학교에 들어가는 판이고보면 제대로의 교육이 될수없는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시험공부를 멀리시켰더니 올해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졌다는 선생님의 우스개소리도 들리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입시점수가 곧 인간점수화하는 제도하에서 교양이나 덕성이 아무리중요하더라도 무슨소용이 있겠는가。하더라도 고교신입생이든 고3졸업생이든 인생의 가장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참이다。아차하면 탈선하기쉬운 10대들이다。고삐를 꽉 잡고 건전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 동 주

생명의 말씀
CITY-TV : 채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BB BLOCK BROS
NATIONAL REAL ESTATE SERVICE
칼가리 오일 붐 타운!
칼가리로 이사를 오시렵니까?
비지네스를 찾으십니까?
금주의 리스팅

	SALE	ASKING	DOWN
GEOCERY	$27,000/mon	$84,000.	$35,000.
	30,000	99,500.	99,500.
FAST FOOD	$1,500 /day	$560,000.	$560,000.
	400 /day	71,000.	71,000.
	450 /day	68,900.	68,900.
DOUNUT SHOP	$600 /day	$135,000.	$135,000.

그럼 정월남을 찾아 주십시요.
전화 : (B)403-245-4381
(R)403-246-0211

근하신년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분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 AUTO SERVICE
길창세
481 DUPONT ST.
전화 : 532-3946

벨기에 美術祭서 한국賞제정

생 제르맹 데 프레 國際展 本社 張康在 회장 創設

金賞등 7명施賞

李必彦·韓昌造씨는 스페인金賞받아

벨기에의 알에서 지난4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생·제르맹·데·프레 國際美術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韓國賞(프리·드·코레)이 제정되어 7명의 각국 화가들에게 메달이 수여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에서 95명의 화가들이 출품한 이 전시회에서 韓國賞은 金賞에 세이도(日本)、銀賞에 필라리스트(그리스)드·빌리에(佛)、銅賞에 아비봉(佛) 보웬스(和蘭) 데르멘지에바(유고) 프레단(유고)등이 수상했다.

韓國賞은 한국일보 張康在회長이 내놓은것이며 지난5일의 시상식에서는 駐벨기에대사관의 金光源공보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속무용이 공연되었다. 이 美術祭에는 韓國賞외에 프랑스、스페인、벨기에、미국등에서 내놓은 賞이 6개가있다. 한국에서는 13명의 화가가 출품을 하여 6명이 스페인의 메리토·뒬루 탈賞을수상하고 (金賞 이필언·한창조、銀賞 정하민·백수남·박만우、銅賞 김한) 1명(유민자)이 벨기에의 특별상을 받았다.

1948년에 창설된 이래 해마다 2회씩 열리는 생·제르맹·데·프레美術祭는 불라맹크、반·돈겐등 이름있는 화가들이 참가한바있으며 고갱、모딜리아니、수틴의 딸들이 명예회장단이 되어있다. 이 예술가들의 국제적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하고있는 이 美術祭는 이미 미국、스페인、일본、和蘭등지에서 순회전시회를 연바있으며 한국에서의 전시회도 추진중이다.

【파리=金聖佑特派員】

◇생·제르맹·데·프레 국제미술제 시상식에서 한국의 허경자양이 한국賞입상자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있다。

五輪조직위설립 祝電

IOC 사마란치委長 金溶植 위원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마란치 위원장은 16일 金溶植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에게 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SLOOC)설립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왔다.

사마란치 위원장의 전문은 SLOOC가 지난10일 위원회설립을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통해 IOC에 통보한데 대한 회신이다。사마란치 위원장은 전문에서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IOC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베를리우IOC 사무총장도14일 李源京 SLOOC 부위원장겸 사무총장에게 적극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

파슨野聯회장 來韓 亞洲大會 부활밝혀

찰스·파슨 아시아야구연맹(FBA) 회장(필리핀·82)이 18、19양일간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야구연맹총회에 참석키위해 부인및 안토니오·파라데자스 사무총장과함께 15일하오 내한했다.

그는 공항에서 서울총회를 계기로 지난75년 제11회대회 이후 중단상태에있는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가 부활될것 같다고 밝혔다.

選手계약 約定토의

프로野球 6個球團 감독회의서

프로야구 6개구단은 16일 장충동 한국프로 야구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감독회의를 갖고 선수계약 약정을 토의했다.

이날회의에는 三星 라이온즈의 徐永武감독、OB 베어스의 金永德감독、三美슈퍼스타즈의 朴賢植감독、해태 타이거즈의 金東燁감독등 5명이 참석、이미정해진 계약금、연봉외에 선수계약에따른 문제들을 검토했다。

MBC감독으로 내정된 白仁天씨는 참석하지않았다。

日 왼손잡이 新鋭골퍼 하가와 아오끼 물리치고 優勝…話題

日本 프로골프계의 영웅 아오끼(39·青木功)를 제치고 혜성과같이 나타난 왼손잡이 신예 골퍼가 있어 화제。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6일 도오꾜 요미우리CC(파72)에서 폐막된 시즌오픈대회에서 아오끼와 똑같은 9언더파 1백35타를 기록、플레이 오프경기에서 버디(파4)로결국 파에그친 아오끼를 물리친 하가와(23·羽川豊) 프로。

우승자를 가리는 미들홀 플레이오프경기에서 버디를 기록함으로써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하가와는 상금도2위 아오끼보다 2백30만엔이 더 많은 5백만엔(약1천5백만원)을 획득하는 영광을 누렸다.

프로2년생인 하가와는 신장1m80、체중70kg으로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예로 내년시즌부터 日本프로골프계를 석권할 전망인데 금년도 日本상금랭킹은8위。

李恩敬·崔貞淑불참 무릎·허리부상惡化

네덜란드排球

네덜란드 아고·디나모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여자국가대표선수중 李恩敬(현대) 崔貞淑(도로공사)등 2명이 부상으로 대표팀을 떠났다.

李는 지난번 제3차 실업배구연맹전 美都波와의 결승전 제3세트서 오른쪽 무릎부분을 골절한데다 그간 주니어대표및 국가대표 선수로 쉴틈없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심한 빈혈증세와 탈진현상등이 겹쳐 대표선수 강화훈련단서 제외됐다.

崔貞淑은 一信女商때부터 고장났던 허리가 최근 다시 악화, 역시 대표팀을 떠났다.

코치 禹龍得씨選任

프로野球 라이온즈

프로야구팀 三星 라이온즈는 韓一銀行의 코치겸선수인 禹龍得씨 (31)를 코치로 선임했다.

禹龍得씨는 70년 大邱商高를 졸업하고 韓一銀行과 국가대표팀 포수로 활약했었다.

美프로풋볼팀 시카고·베어즈에 한국계 치어리더 登場 큰 관심

에비·朴、競爭뚫고入團 모델까지겸해

미스일리노이 비너스 大會서 우승도

한국계 치어리더가등장、美식축구를 사랑하는 美國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치어리더란 美國에서 미식축구경기를 할때 등장하는 일종의 소수응원단。이들은 짧은 바지·꽉끼는 상의차림에다 꽃수술등을 가지고 경쾌한음악에맞춰 자기팀 선수들의 사기를 올리는 응원을하는 것은 물론、관중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美國의 28개 프로풋볼팀은 이같은 치어리더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시카고·베어즈의 치어리더중 한국계인 데비 안소니·朴(21·사진)이 지난 시즌부터 등장한 것。데비·朴은 6·25때 미군병사의 아들로 입양、美國에 건너간 존·안소니·朴(현재44)씨와 노마·안소니(40)씨사이에서태어난 3남2녀중 세째딸로 일리노이州 락포드市에서 성장했다。지난 79년 길포드高를 졸업한뒤 지난해시카고팀의 치어리더그룹인 하니·베어즈(꿀같이 달콤한 곰)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단했다。까만머리、갈색눈、168㎝의 키에 34―25―35의볼륨감넘치는 몸매를 지닌 데비·朴은 치어리더 활동중 크게 부각돼、현재는 직업모델을 겸하고 있다。

데비·朴은 지난해 미스 코리아 美國중서부 선발대회에서 眞으로 뽑히기도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본대회에는 출전치않았으며 미스일리노이 아메리칸대회 2위입상등 다채로운 경력도 갖고있다。

데비·朴이 소속된 하니·베어즈의 단원수는 모두32명。이들중 16명이 매년신인으로 교체된다。하니·베어즈는 흥겹기때만 경기장에 나가는데 보수는 게임당 10달러(약7천원)가고작이며 시범경기를 포함、한 시즌에 받는 보수가 1백달러정도이다。이같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치어리더가 되려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것은 치어리더가 되면 영화배우、탤런트의 등용문구실을 하는것은 물론 또한 치어리더가 되면 美國여성으로서는 큰 명예가 되기때문이다。

【시카고支社=尹赫記者】

꿈의 보트이야기

나의 이력서 元一漢 ⑱

〈韓字·元一漢〉

父親덕 어려서부터 바다즐겨

나는 바다를 무척 좋아한다。바다를 남달리 좋아하게된 것은 남달리 바다를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나는 어린나이에 아버지의 安息年을 맞아 미국에 가고 올때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보름이상씩 지내곤했다。

바다여행은 멋이있고 즐겁기만했다。아버지는 바다를 좋아했을뿐만 아니라 바다에 좀더 친근하기 위해 배를 깊이 연구하는등 배에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배에 대한 관심이 크다보니 李忠武公의 거북선을 연구하게 됐고 「Boats and ships of korea」(한국의 배)란 저서를 펴내기 까지했다。이책은 한국의 여러가지배 형태와 특히 거북선의 구조를 상세히 파고든 것이다。

거북선 연구에 열중했던 아버지는 忠武公을 매우 존경했다。거북선을 알고는그를 존경하지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배를 직접설계、건조하여 두차례나 한강에서출발 황해도 長淵九味浦까지 항해한 일이있다。

나는 만10살이 될까말까할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국적인 항해에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지금생각해도 신기하기만하다。

최초의 항해는 한여름에 아버지가 미국서 주문해온 커누로했다。까딱거리는 커누를타고 九味浦까지 일주일이나 항해했다는 사실이 지금은 믿어지지않는다。

커누에는 줄타기하는 사람이 막대기를 손에들고 몸의균형을 잡는 것과 똑같은 원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있기는 했다。

한강을 벗어나 바다에 나가서는 육지로부터 가까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방법을 택했다。

음식물은 취사도구와 함께 미리 준비、육지나 섬에 내려 끓여먹었고 잠자리는 텐트를 쳐야했다。

이 항해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있다。그것은 취사준비를 위해 어느 섬에 내렸을때마침 아버지가 식사후에 마시는 코피에 넣을 설탕이 떨어졌다。

그 섬에는 잡화류를 파는 구멍가게가 있기는 했다。그런데 설탕을 봉지에 넣어 파는것이 아니고 요즘다방에서 코피에 탈 만큼 적은 분량을 신문지에 싸서 내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 한적한 시골에서는 설탕 한숟갈이 이렇게 귀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놀랐다。

◇맑은물 시원한 바람의 풍광이 아름답던 九味浦해수욕장 전경。아버지와 나는 배를타고 한강서 이곳까지 두차례에 걸쳐 항해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식배 「검은오리」만드는일 돕고 本格航海에

아버지는 이커누試航을 토대로 본격적인 항해를위해 한국식 배를 제작했다。배의 이름은「검은오리」(Black duck)로 명명됐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지금도월간으로 발행되고있는「YACHTING」잡지의 1931년11~12월호에 검은오리의 제작과정과 항해기록을기고했다。현재 내가보관하고있는 이잡지에 실린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펼쳐진다。

「Korean black duck」라는 제목의 이기록은「검은오리」가 부화되기 까지의 과정이 먼저 묘사되고 있다。

『검은오리는 꿈의보트의 이야기다。미국에서 건조된 어떤 보트도 꿈의 항해에는 도달할 수 없다。나에게는 한국의 한로에 알맞는 한국의 배 (Native boat)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기록은 시작된다。

아버지는 한국의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설계를 직접 맡았고 자료도 손수 구했다。

넓은 종이를 펴놓고 설계할때는 반드시 나에게 점선을 그리라는등의 일을 시켰다。나도 이일을 거울삼아 나의 큰아들이 10살됐을때 그와 맞먹는 무슨일인가를 시켜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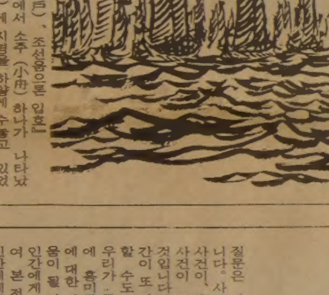
10살난 2세와함께 커누를 같이 만들어 타고 바다길을 항해했다는 그 사실은 바로「산교육」이었다고 믿고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流星의 賦 <26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㉘



5일 후 도착한 곳은 미다지리(三田尻) 였다。몽이양아 배를 육지에 붙일 수가 없어 포(浦)의중류에 닻을 내리고 밤을 새우기로 했다。이것도 모오리씨의 소령(所領)이다。

정문관에서 이곳까지의 경색은 산、산、산의 연속。그 산 아래는 백사청송(白沙青松)。화중(畵中)에 그림이 있고、그림 속에 시(詩)가 있는 경관의 묘함이여、계남은 줄곧 시심이 동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시 몇수를 머리 속에 적어넣고 짧을 엮어 차천락의 의견을 들어볼 작정을 했다。

7월17일 새벽。밀물을 타고 출범。서풍이 강하게 불었다。대마도의 배、장주(長州)의 제선등이 일제히 돛대를 올렸다。범(帆)、노(櫓)、정(旌)、기(旗)가 바다를 덮길 수십리였다。일본인 통사가 계남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만한 선세(船勢)같으면 명나라를 칠 수도 있지 않겠소』

계남이 그 말에 발끈했다。

『당신들은 항상 남의 나라를 칠 생각만 하우?』

통사는

『배의 행렬이 하두 장관이라서 한마디 해 본것 뿐인데요 뭐』

하고 목을 움츠렸다。

산기슭에 마을이 있었다。

『저건 향덕포(向德浦)라고 하죠』

통사의 말이었다。

반각쯤 해서 해안에 또 마을이 나타났다。

『저건 덕산(德山)이구요』

통사가 또 하나 나타난 마을을 가리키며

『저건 가사도(笠戶)、조선음으론 입호』

라고 했을 때 저편에서 소주(小舟) 하나가 나타났다。작은 흑기(黑旗)에 지명을 하얗게 수놓고 있었다。물과 채어(菜魚)를 진공하겠다는 것이다。

『누구의 진물(進物)인가』

하고 통사가 물었다。

『태수(太守)의 명으로 사신(使臣)의 통과를 기다렸소이다。종자(從者)의 노를 다할까 합니다』

하는 대답이었다。

그날 밤 통신사 일행은 상관(上關)에서 묵게 되었다。이곳은 주방주(周防州)에 속하는 땅이다。

객관은 주방주태수(周防州太守)의 다옥(茶屋)이라고 했다。가구나 조도와 기구는 적문관(赤門關)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의 민가도 많지 않았다。다만 푸르른 연봉(連峰)、고송(古松)과 굴이 점철된 풍광이 수발했다。

항구의 좌편에 전함(戰艦)이 있고 그 하관(下關)과 마찬가지로 엄중하다。상관 하관을 이은 상거는 3백40리。그 사이의 바다와 산의 형국은 강수(江水)가 산협(山峽)을 두르는 형세와 같았다。그리고 서북양계(西北兩界)의 산이 중첩하다。

그들은 이곳에 요새와 중관(重關)을 두어 엄한 경계를 하고있다。군데 군데 등대(燈臺)가 있고 봉후(烽堠)가 있어 상망(相望)하여 신호한다。

주민들은 수전(水戰)에 익숙한듯 싶었다。배를 조종하길 어린애의 장난감같이 했다。바다를 보길 육지와 같이 한다。

『아아』

하고 계남은 가슴 속에서 신음했다。

(하늘은 일본에 기막힌 경관(景觀)을 주고 풍요한 부를 주었구려。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다。

海外旅費 6천弗까지 허용

入國16일이후 再旅行者에 限해

한번이상 해외여행을한 사람이 16일이후 다시 해외여행을 나갈때는 여행경비를 기본 3천달러에서 최고6천달러까지 공식적으로 지니고 나갈수있게됐다。

재무부는 16일 해외경비지급제도를 개선、해외여행때 바꿔나간 외화가운데 쓰고남은것을 국내에가져와 외화형태로 예금할경우 다음번 여행때는 기본경비한도 3천달러외에 다른허가 절차없이도 예금한 외화를찾아 3천달러 한도내에서 추가로 갖고나갈수 있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해외여행에서 쓰고남은 외화를 귀국후그대로 갖고있거나 암달러시장에 파는 것을 막고 유휴외화를 은행으로 끌어들이기위한것으로 과거 여행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라도 외화예금을 해놓으면 다음번여행때 찾아갖고 갈수있는데 몇번 여행경력이있더라도 3천달러까지만 추가소지가 허용된다。외화예금은 외국환은행이면 어느곳에서나 받아

한국일보

도자기등 52개品目 올림픽 特需品선정

전문業體육성

상공부는 16일 도자기·장신구·조화·잡등 52개 민속제품을 올림픽特需민예품으로 선정하고 오는83년까지 2백개 전문생산업체를 지정、디자인개발과 기술지도를 중점 실시키로했다。상공부는 우선 내년에 중소기업저리자금 50억원을풀어 시설및 원자재구입자금으로 쓰도록하고 지정업체 제품에대해 정기검사제를실시、품질고급화를 유도키로했다。

바다에서 플룻을 <6>

梁順錫 作 金鈴 畵

그의 삶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향했던 나의 신선한 욕망을 거두어들임으로써 가능했다。

공존하며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일까?사랑의 처음은 왜 욕망인가。사랑할 수 있을 것같다는 예감 뒤에는 언제나 파괴의 발자국이 있었다。그것은 내면의 평형을 짓밟고 오는 발자국이었다。

더욱 확실한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가 나와 동질의 인간임을 인정하자 내가 그에게 품었던 욕망이 노출되고 말았다。그리고 나는 그와 만난 몇 시간에 그의 과거까지 소유하고 싶은 나의 긴 이기심을 감추고 있는 나를 보았다。나는 그가 과거에 어떤 정열을 가졌을까 몹시 비굴한 호기심을 억눌러야 했다。

『이 버스에서 우리가 만나 나눈 대화는 얼마나 피상적입니까。그러나 이번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사람마다 단 하나의 사건이、혹은 복잡한 여러 사건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또는 하나의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리가 좀더 우리의 대화에 흥미를 가지려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도움이 될것입니다。당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지배당한 본적이 있읍니까?한 인간에게서 놓여나지 못해 본적은 없읍니까?』

그는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다。그 말을 듣는 순간 더럭 그가 낯설어지고 그 말이 힐난조로 들렸다。

『어렵게 말씀하시는군요』

『쉽게 말할까요。자신을 바쳐 타인을 사랑하여 본적이 있읍니까?』

그가 비로소 그의 관심을 표명하였다。처음에 그에게서 느꼈던 시린 인상과、온정의 [illegible]이 이해되었다。

『있어요』

『남자를?』

『아니요。여자였어요』

『흥미롭군요』

『뭐가 흥미로운가요?부당하게 들리시나요?』

『천만에요。여자들이란서로 애정을 나눌 줄 모르기때문이지요。여자는 남자에겐 자신을 전부 바치면서 여자 자신에게는 정작 아주 인색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관한 한 무엇도 단정지을수는 없어요。인간의 얼굴만큼 각양각색의 사랑이 있으니까요。인간의 얼굴이 서로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각자 다르듯이 그들의 사랑의 모습도 모두 다르지요。사랑의 불행은 그 사람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격에 맞추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그녀는 아름다왔고 따스했어요』

『아름답고 따스하다는 것은 사랑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런 여자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당치않은 질투심을 감추며 그를 바라 보았다。그의 덧니가 보기를 희망하면서。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다。그는 침묵하였다。나는 그의 얼굴과 침묵의 두께로 미루어 그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었었나 짐작할 수 있었다。살아가는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서 오는 열등감과는 다르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한 여자、화강언니를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을 동반한 모멸감이었다。화강、나는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 물을 퍼올리듯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대한항공이 더욱 편리해졌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에는 뉴욕에서 매주 3회, L.A.에서 매주 10회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점보기 편을 이용 하시면 아주 편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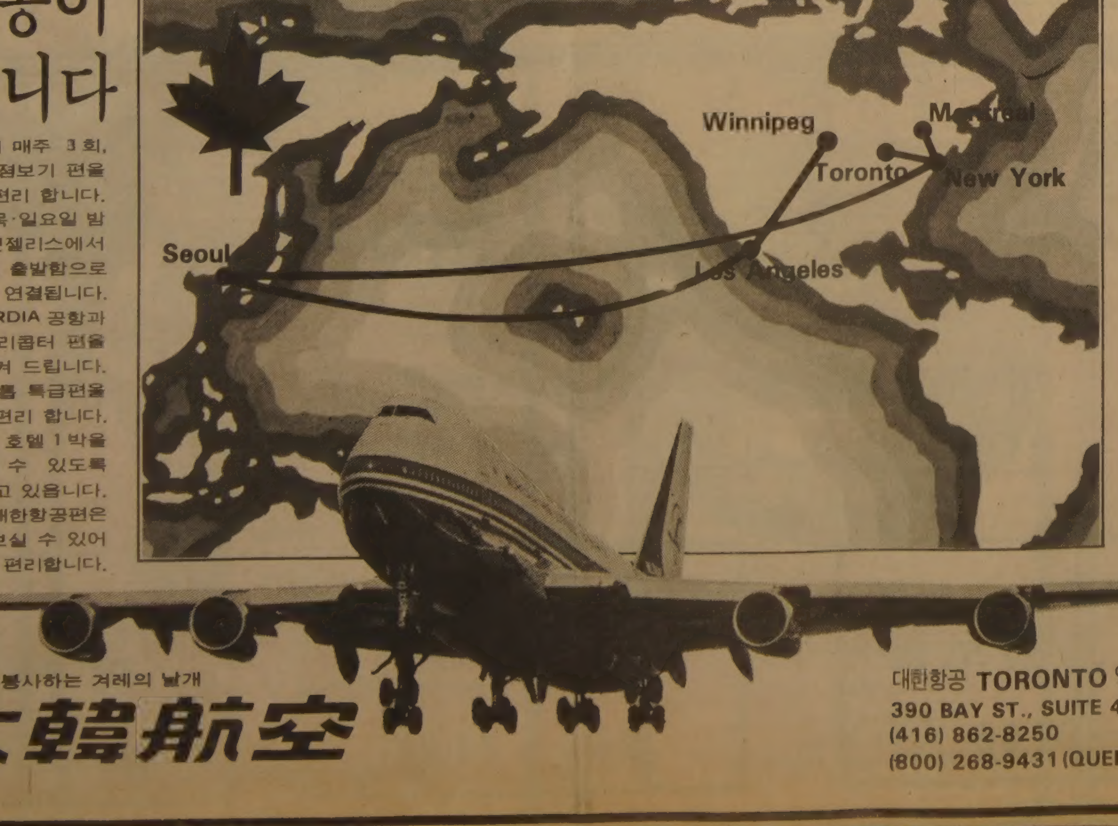
대한항공 007편은 뉴욕의 JFK공항을 화·목·일요일 밤 11시30분에 그리고 015와 005편은 로스앤젤리스에서 매 일(월요일 제외) 밤에 한국으로 출발함으로 카나다 어느 도시에서 떠나셔도 당일로 연결됩니다.

뉴욕까지의 연결편이상 부득이 뉴욕의 LAGUARDIA 공항과 JFK공항간을 원하시는대로 헬리콥터 편을 이용 무료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논스톱 특급편을 이용하실 수 있어 더욱 편리 합니다.

뉴욕편을 이용하실 경우엔 뉴욕에서의 호텔 1박을 무료제공, 다음날 아침 카나다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읍니다.

언어의 불편없이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편은 오시다 뉴욕이나 L.A.의 친지를 만나 보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카나다→뉴욕→서울

	토론토	몬트리얼
출발	18:40	19:15
편명	AC778	EA421
도착	20:00 LAG	20:22 LAG
뉴욕 출발	23:30 JFK KE007 화·목·일	
서울 도착	07:10+2	

카나다→L.A.→서울

	위니펙	토론토
출발	13:30	17:45
편명	AC763	AC793
도착	17:41	19:50
로스앤젤리스 출발	22:40 KE015 화·수·금·토	20:50 KE005 목·일
서울 도착	07:20+2	07:30+2

서울→뉴욕→카나다

	토론토	몬트리얼
서울 출발	19:00 KE008 화·목·일	
뉴욕 JFK 도착	21:10	
뉴욕 출발	09:10+1 LAG	09:55 LAG
편명	AA263	AC743
도착	10:44	11:15

서울→L.A.→카나다

	위니펙	토론토
서울 출발	20:40 KE012 (KE006) 매일	
로스앤젤리스 도착	18:55	
로스앤젤리스 출발	07:45+1	00:32 / 08:15
편명	AC764	AA196 (CHI) AA160 / AC790
도착	15:21	09:13 / 15:40

KE:Korean Air Lines AA:American Airlines AC:Air Canada EA:EASTERN AIRLINES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지정여행사
한국여행사 531-4607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追越기용」에 법조계「萬波」

檢察수뇌更迭 들뜬분위기속 去就논의도

예상못한「高試8회 頂上」

회오리속에"곧 人事 바람"

"껍질깨는 陣痛 동요말아야" 國民들

검찰이 9개월만에 또한차례 「대개편의 홍역」을 앓고있다. 고시8회 출신의 검사장이 일약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인 발탁을 받음으로해서 생기게된 인사파동이다. 크게봐서 지난4월 있었던 인사에 맥을 같이해서 취해진 검찰인사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아진다. 파격인사로 등장했던 許亨九총장이 9개월만에 단명으로 자리를 물러나고 신임총장이 예상외로 전격기용 된데서 큰충격을받은 검찰은 지금 인사에 따른 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검찰이 참다운민주화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견뎌야 한다』고 지적, 검찰의진통이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되줄것을 희망했다.

취임9개월만에 물러난 許亨九검찰총장의사임배경에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것은 없으나 許총장이 취임한이래 私學비리, 鄭仁永씨외환관리법 위반사건등에대한수사과정에서 정책감각상의 미흡한점이 지적됐었고 최근에는 저질연탄폭리사건수사때와 여대생 朴尙恩양피살사건처리과정에서 정부조직간의 불협화음을 낳은데대한 인책사임으로 풀이되고있다.

또 「불명예제대설」도 일각에 나돌아 총장자리의권위를 생각하는 젊은 검사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고시8회출신의 검찰수뇌진은 이날상오 裵命仁차장실에서 긴급회의를열고 거취문제를 논의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상부의지시가 있을때까지 동요하지않기로 의견을 모으기도했다.

許亨九검찰총장은 16일 하오 이임에앞서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물러날 각오가 돼있어야하기때문에 나의 이임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절대로 동요하지말고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달라』고 검찰간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검찰총장 경질소식이 전격적으로 전해진 16일상오 각급검사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후속인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등 검찰청사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조간신문과 방송을통해 이미 경질사실을 안 검사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각방을 기웃거리며 『경질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후임총장이 누구냐』는등 긴장과초조한 표정들이었다.

특히 대부분의검사들은 15일하오까지도 총장경질소식을 못듣고 퇴청했기 때문에 더어리둥절한 표정이 역연했다.

총장 경질소식이 알려진것은 15일하오 16일상오에있을 임시각의 안건으로 법무부인사가 제안되면서부터였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무부인사라면 검찰총장 1명뿐이고 따라서 검찰총장이 바뀐다는 사실이 출입기자들에의해 확인됐으며 이때부터는 후임총장이 누구냐는데 관심이 모아졌었다.

재경 부장이상검사들은 15일밤에 있었던 都泰求전서울지검 南部지청장의 변호사개업피로연에 참석했는데 이자리에서 총장경질소식이 알려졌으나 후임으로는 지방의 P고검장이 유력하게 나돌았다는것.

이때문에 이날밤 보도진의 전화를 받은 대부분의 간부검사들은 『후임총장엔 P씨가 확실시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하오 P고검장은 임지를 떠나 이미 서울에 와있었던것으로 알려져 「P씨설」은 신빙성이 있는것처럼 들렸으나 뒤늦게 그는 사표를 내러 상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고검장의 하마평은 현재 검찰요직을 독점하고있는 고시8회에서 너무 빨리 총장이 나오면 후속 인사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서 과도기적인 인사로 타당성이 있게 전해진게 사실.

그만큼 신임 鄭총장의 기용은 돌연한 許총장의 퇴진에 못지않게 『예상밖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있을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李鍾元법무장관이 검찰을 이끌어가는 데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것으로 예상하는 검사들도 많았다.

또 이번 검찰총장 경질및 그에따른 일대개혁인사로 세대교체가 이룩되는점도 있지만 검찰의 약체체질을 가져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검찰내부에서일고있다.

한편 신임 鄭총장은 지난 일요일(13일) 은밀히 서울에 올라와 총장임명 언질을 받았고 그자리에서 정식발표가 있을때까지 발설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는후문.

또 퇴임하는 許총장은 15일하오2시까지 자신의 거취문제를 전혀모르고있다가 모처로부터 경질통보를받은 L모대검검사가 총장실을 찾아와 귀띔을해줘 알았을만큼 이번인사가 전격적이었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몰랐는데 이임하는 許亨九검찰총장(左)이 청사앞에서 검찰간부들과 고별악수를 나누고있다.

破格이상의 쇼크가

줄辭表속 同期검사26명 고민중

保守·경직서 융통의바람 必然的

「부분手術」이 현명하다는 衆論도

鄭致根총장 등장의 意味 (해설)

鄭총장의 등장은 아무리 최근에 「파격인사」가 많았던점을 감안하더라도 가히 충격적인 인사다. 우리나라 관료조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경직돼있는 검찰조직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인사포석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巨物급 재야인사가 정치적인 배려를타고 총장에 영입되거나 대검차장, 또는3개고검장자리를 거친후 임명되는것이 정석이었고 지검장이 곧바로 발탁된다면 아마 서울지검장자리 정도가되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만큼 총장의 자리는 접근이 어려운 요직, 더구나 급수로도 서울지검장과 동렬로 보아주지않는 지금까지의 관례였던 부산지검장의 총장취임은 전통과 외관상의 의미만으로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따져보아도 놀라운 인사다. 전임총장(고시2회)과의 사이에 있는 선배4사람이 16일 이미 사표를 냈고 신임총장과 고시동기(8회)인 26명의 검사가 거취를 분명히 해야될 입장에 놓였다.

인사태풍이 다시 한번 부는것은 피할수없는 일이다. 지난4월 있었던 1차파격인사를 1단계로 본다면 이번에는 2차파격인사가 취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새시대에 맞는 검찰체질을 갖추게 하겠다는 정부의 고차원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 할수가 있다.

지난4월인사때도 許亨九총장(고시2회)이 발탁되자 선배인 李鍾元법무장관(변시3회, 당시大邱고검장), 徐廷覺변호사(고시1회, 당시光州고검장)와 동기인 文相翼변호사(당시 水原지검장)등이 후진들에게 길을열어주기위해 사표를냈었다.

이번에도 역시 신임 鄭총장의 선배인 李桔佳서울고검장(고시4회) 柳泰善光州고검장(3회) 朴駿陽大邱고검장(5회) 鄭明來법무연수원장(6회)등 고검검사장 4명이 15일하오 사표를 냈다.

금명간 단행될 검찰수뇌진 인사의 핵은 신임 鄭총장과 동기인 고시8회의 향방에달려있다.

현재 고시8회는 법무부에 徐東權차관, 宋炳旈기획실장, 白光鉉법무실장, 安景相교정국장, 대검에 裵命仁차장, 金理基총무부장, 李重根형사2부장, 姜遠秀형사1부장, 朴昇공안송무부장, 지방검사장에 金鍾輝서울지검장, 求春川지검장, 李明熙水原지검장, 李居珏淸州지검장, 金世權大田지검장, 李英基全州지검장, 永旭大邱지검장, 容植光州지검장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현체제하에서는 신임총장이 역대 그 어느 총장보다도 지휘권행사가 편하리라는 예상을 쉽게 할수가 있다.

그렇다면 총장의 동기검사 그 숫자를 3분의1선으로 줄이면 된다는 간단한 공식이 나올수있다. 고시8회중에서 능력, 사생활, 국가관등에서 동료에비해 평가가 낮았던이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것이다.

현재로는 「부분수술」 쪽이 현명하다는 중론이 나와있다. 오래전부터 검찰내부에서는 고시8회가 정상에 갈때 검찰이 중흥기를 맞을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왔다. 그만큼 인재가 많다는 얘기다. 반면에 「고시8회」때문에 검찰이 경화될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원을 물러나게 하느냐, 반수선으로하느냐는 것은 신임총장이 법무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할일이 아니겠느냐는것.

사실 고시8회는 23년에서 26년까지 검사생활을해온 우리나라 검찰의 중추다. 신임총장의 지휘력보장을 위해서 모두 용퇴를 바라기에는 아까운 인재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중론인 현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내부에서는 곧 있을 인사에서 고시8회출신이 일부가 물러나는선에서 그치리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일고있고 고시15회까지 대검검사가 기용되는등 연쇄적인 승진인사가 따를것으로 보아 젊은 검사들이 기대에 차있는 것도 사실이다.

「격변기속의 변화」에서 검찰이 예외일수는 없고 한두차례의 인사로 체질이 단번에 고쳐지는것도 아니고보면 마무리작업이 언젠가는또 필요하다는 논거도 낳는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융통성있게 변화에 대응해주길 바라고 있다.

【安澤秀·崔畯植기자】

오늘 高入聯合고사

날씨 다소풀릴듯

20개市 平準化지역

8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선발고사가 17일 전국 20개시평준화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연합고사에는 모집인원 37만9천9백50명에 45만3천4백32명이 지원, 평균 1.1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수험생들은 이에앞서 16일낮1시 지정된 고사장학교에 예비소집돼 수험표를교부받고 올해부터 달라진 답안지기표요령등 응시상의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중앙관상대는 고입연합고사일인 17일의 날씨가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나 비가오겠으며 기온은 서울지방의 아침이 영하3도에 그치는등 비교적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

汎국민 環境개선·意識개혁

內務部추진

아시안 게임 올림픽 對備

불량住宅·간판整備·1억그루 植樹

都心 뱀탕집등 移轉·재래식便所 개량

내무부는 16일 오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세계올림픽대회개최를 앞두고 범국민적 국토환경 개선작업과 정신개혁운동을 새마을 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환경개선작업은 고속도로와 철도변의 입간판, 옥상간판등 불량선전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불량주택 21만동을 철거하며 도시 접객업소와 농어촌, 소도읍의 재래식 변소 12만2천개를 개량할것등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국공립 공원과 해수욕장의 오락장과 휴지통등 환경도 개선토록한다는것.

또 서울을중심으로한 간선도로와 유원지의 생활환경등을 정화하기위해 5개분야84개 세부실천사항을 정해 주민자주사업으로 주거환경등을 고쳐나가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심간선도로변의 뱀탕, 보신탕집등을 뒷골목으로 옮기고 국민1인당평균4그루씩 모두 1억2천만그루의나무를심어 전국토를 푸르게할 작업도 편다.

정신개혁운동으로는 친절, 근검, 질서, 품위, 전통, 미풍양속등 모두8개분야별로 추진하되 식단줄이기,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기, 차례로줄서기, 약속시간지키기, 습득물신고하기, 침 안뱉기, 꽁초와 휴지 안버리기등 1백84개실천사항을정해지역, 직장, 단체별로 알맞는운동을펴기로했다.

이같은 범국민적 개혁운동을 뒷받침하기위해 내무부는 市道郡區邑洞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도록하는 한편 매년1회씩 현장확인등을 거쳐국민의식개혁변화도를측정, 연차계획을세우도록했다.

서울大「大學新聞」6週休刊

학생記者21명 全員 辭表 내

서울大 교내신문인 대학신문이 지난달2일 지령1110호를낸후 16일현재 6주동안 발행되지 않고있다.

그이유는 대학신문 학생기자 3명이 지난10월말 대학축제기간중 발생했던 축제반대시위와 관련,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등 징계를받은뒤 나머지 학생기자 21명전원이 11월초 사표를 제출했기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의 한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방학이 시작되기때문에 새학기가되면 이같은 휴간사태는 자연히 해결될것』이라고 내다봤다.

奧地근무 戰警위해 사랑의주머니 담아

李順子여사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6일하오 대한적십자사강당에서 각부처장관부인, 外廳長부인등 30여명과 함께 「사랑의 주머니」를 만들었다.

올해 만들게될 「사랑의주머니」는 약2천여개로 오지에서 근무하는 전투경찰에게 보낼예정이다.

朱永炯 기소

自殺敎唆 미수追加

李潤相군 유괴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온 서울지검형사3부 柳濟仁검사는 16일 潤相군 유괴살해범 朱永炯교사(28)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유인후살해,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금품요구)및 사체유기혐의로, 또다른 공범 高양(17)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인은닉·도피)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날 柳검사는 『朱가 공범 李양의 자살을 교사해 증거를 인멸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서 송치된 죄명에 자살교사미수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통戰警輪禍→入院사이

拳銃(38口徑) 없어져

서울 瑞麟호텔앞서 교통정리를 하던 전경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기던중 권총을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하오7시40분께 서울鍾路區瑞麟洞43 瑞麟호텔앞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서울鍾路경찰서소속 蔡桓錫일경(20)이 서울2다8803호 포니승용차(운전사 柳在浩34)에 받혀 의식을 잃었다.

崔일경은 사고즉시 길가던 20대청년3명의 부축을 받고 사고차량편으로 고려병원에 옮겨졌는데 차고있던 38구경 권총(총번C801399)이 없어졌다는것.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권총을 찾고있으나 崔일경을 싣고가던 사고차량에 넣었다는 이강인씨(40·서울江南區牛眠洞2)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崔일경을 병원으로옮겨준 20대청년들이 가져간것이 아닌가보고 이들을 찾고있다.

두곳 아기 窒息死

"삐뚤이矯正"엎어재워

잠난 어린이를 엎드려 재우는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에따라 부모들이 엎어재운 생후 2개월된 어린이 2명이 질식, 숨졌다.

15일상오3시께 서울永登浦區堂山洞3街三益아파트 1동509호 金貞愛씨(25·여)집에서 金씨의 생후2개월된 장녀 梁惠양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채 질식, 숨졌다.

이날 어머니 金씨는 어린이를 키울때 엎드려 재우면 좋다는 말을듣고 梁惠양을 엎드려 재우다 변을당하게 된것.

또 16일 상오8시께 서울江東區蠶室1洞 잠실주공아파트79동101호 方太容씨(28·상업)집 안방에서 方씨의 2남 孝眞군(생후2개월)이 요위에 엎드린채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 明英姬씨(2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明씨에의하면 전날밤 11시30분께 우유를먹이고 비뚤어진 머리를 교정해주기위해 孝眞군을 평소대로 오른쪽으로 뉘어 재웠는데 이날상오 깨워보니 숨져있었다는것.

孝眞군은 목부분까지 포대기에 덮혀있었고 엎드린채 숨져있었다.

萬원券 變造지폐 7장 발견

1만원짜리를 앞뒷면 두장으로쪼갠 변조지폐 7장이 한은출납창구에서 발견돼 한은이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은은 16일 한은에서 발견된 이들 변조지폐들이 4명의 검상과 구멍가게 상인들 돈중에 섞여있었다고 밝혔다.

이변조지폐 7매는 1만원짜리의 앞뒷면을 쪼개어 한쪽에 신문지를 붙인것으로 모두가 만원짜리 뒷면만 나타나 있었다.

한은은 지폐변조범들이 진짜 돈모양이있는면을 밖으로 향하게 접어서 어두운시간을 골라 구멍가게·노점상에서 소액물건을 산뒤 잔돈을 바꾸어가는 수법을 사용한것같다고 밝히고 이미 발견된 반쪽변조지폐의 앞면부분 변조지폐7장이 현재 유통되고있거나 동일수법으로 변조된지폐가 상당량 더있을가능성이 크므로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할것을 당부했다.

손발묶고 現金강탈

強盜혐의 20代拘束

서울南部경찰서는 16일 이종태군(21·주거부정)을 특수강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군은 낮12시40분께 서울冠岳區新林洞 金모씨(23·여)집에 침입, 金씨의 입을 반창고로막고 미리준비한 빨래줄로 손발을묶은후 현금6천원을 빼앗고 폭행까지한 혐의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487-5323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謹賀新年
새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에
번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IMPERIAL LIFE
김홍량 종합보험
482-0166

자동차
GRANT BROWN
이 한 구
247-7161

동 양 식 품
함 태 민
248-5131

駐레바논 이라크大使館에 爆彈
死亡 25명·百여명 負傷
괴한들 乘用車에 百kg폭발물 적재 建物로 돌진

【베이루트(레바논)15日AP·UPI=聯合】 베이루트시내 서부의 회교도거주지역에 위치한 이라크대사관에서 15일정오(현지시간) 1백kg의 강력한 폭탄이 폭발, 이 6층건물이 대파되면서 건물안에있던 대사관직원등 적어도 25명이 죽고 1백여명이 부상당했으나 압델·라자크·라프테 이라크대사는 무사했다.

◇철저히 붕괴된 이라크大使舘 15일 폭파되어 완전히 붕괴된 베이루트주재 이라크대사관。이 6층건물에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베이루트15日UPI電送=聯合】

이 사건은 전쟁 으로 황폐화된 베이루트시내에서 외교공관에 대해 가해진 가장 파괴적인 테러공격 사건이다。

관영 이라크통신(INA)은 폭발물을 적재한 한 승용차가 대사관건물로 돌진한 뒤 폭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란 및 시리아 첩자들이 이같은 폭탄테러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INA의 베이루트주재 사무소는 이 대사관 건물내에 위치해있었다。

이라크는 현재 이란과 교전중이며, 아랍·바트社會黨의 적대적 분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리아와는 반목상태에 있다。

INA는 30명의 대사관직원들이 파괴된 대사관건물의 잔해속에서 구조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레바논경찰과 보안군 소식통들은 아직 정확한 폭탄폭발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각각 20kg씩의 폭탄 5개가 대사관건물 후면에 있는 6개 支柱들의 바닥에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테러범들이 엄중한 경계조치가 취해진 대사관건물을 땅굴을 뚫어 침투한뒤 시한장치가 되어있는 폭탄들을 그곳에 매설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大使는 무사

이스라엘、全軍 非常令
골란高原합병 시리아軍事行動대비

【예루살렘15日AP·UPI=聯合】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합병조치에 대한 시리아의 예상되는 군사행동에 대비하여 15일 골란고원주둔군을 비롯한 全軍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골란고원에 탱크와 장갑차를 이동시켜 임전태세를 강화했다。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은 이날 긴장이 감도는 골란고원을 시찰, 『전쟁발발에 대비한 모든 필요한조치가 취해졌다』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의 이집트방문이 취소되었고 골란고원의 이스라엘정착촌 주민들은 대피호를 손질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와함께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정찰비행을 강화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2만명의 시리아군이 주둔중인 레바논의 베이루트상공과 레바논남부지역을 3차례 정찰비행했으며 치열한 對空砲의 응수를 받았으나 이스라엘기의 피격은 보도되지않았다。

이스라엘군의 이같은 동향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을 「休戰의 종식」이며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골란고원과 가자지구·하이파·예루살렘·시나이半島를 회복하기위한 아랍국의 단결을 촉구한데 대응하기 위한것이다。

美 유엔決議案 찬성용의
이스라엘의 골란高原合併 규탄

【워싱턴15日UPI=聯合】 미국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合併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이 對이스라엘제재조처를 포함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경한』것이 아니라면 이에 찬성할 것이라고 미국관리들이 15일 밝혔다。

미국무성관리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결정이 미치는 법적·외교적영향 등을 검토중이며 일부 관리들은 이 결정이 지난 18개월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협상진행을 중지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집트관계 影響없어
무바라크、골란高原 합병불구

【카이로15日AFP=聯合】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15일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결정이 평화진전에 장애를 주는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집트와이스라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집트·이스라엘 양국간의 선린관계유지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국가들간의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집트가 어떤입장을 취할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집트가 사전에 협의를 받지 않은 이상 어느편도 들지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상대로 전쟁을 벌인다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리아자체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新總長에 쿠에야르
유엔, 만장일치選出

【유엔本部15日=金泰雄특파원】 유엔총회는 15일 만장일치로 투표없이 安保理가 추천한 페루의 쿠에야르대사를 새 유엔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그의 임기는 82년1월1일부터 86년말까지 만5년동안이다。

日, 올對中共엔借款 모두 6백억엔합의
日·中共각료회담

【東京16日=聯合】 日·中共양국은 15일 東京에서 열린 제2차 日·中共각료회의에서 금년도對중공엔차관으로 6백억엔을제공하기로합의했다。

對중공엔차관 6백억엔은 앞서 5년간 모두 3천억엔을 제공하기로한것의 금년도분으로서 차관조건은 年利3%, 10년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분할상환으로 일본이 이제까지 각국에 제공한 엔차관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체코、反體制인사들 拘禁
波 계엄사태抗議도 금지

【프라하15日AP=聯合】 체코슬로바키아경찰은 폴란드계엄선포이후 상당수의 반체제인사들을 구금하는한편 반체제세력에대해 폴란드의 계엄선포에 항의하지말것을 경고했다고 체코의 반체제소식통들이 15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77인권헌장운동의 한 대변인 바클라부·말리와 이 현장에 라이프슐라브·러스가 反정부선전활동을 했다는혐의로 지난13일 경찰에 구속됐다고 말하고 베드리히·플라카크를 비롯한 이운동의 회원다수가 경찰에 소환돼 폴란드자유노조를 지지하는 행위가 국가전복활동으로 간주될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土龍精 美에 첫수출
6개월간 60만弗契約

지렁이에서 영양분을 추출하여 만든 土龍精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되어 美國등지에 처녀수출됨으로써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게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國土龍產業(株·吳禮煥)은 토룡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는것을 기계화, 경기도 양주군회청리에 일산1천6백병규모의 공장을 건설, 토룡정과 분말의 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최근 美國人인 치과병원장 길버트씨와 월10만달러씩 6개월간에 걸쳐 모두 60만달러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토룡정이 새로운 수출유망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됐다。

蘇軍개입땐 더큰困辱
폴란드勞動者들 抗戰위해 武器비축

쇠몽둥이들고 罷業

○…계엄에 항의, 조선소·철강공장등을 점거하고 있는 수천명의 폴란드노동자들은 연장과 쇠몽둥이를 들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빈에 와있는 자유노조간부가 밝혔다。 그는 총기류를 비축하고 있는 공장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계엄선포로 스웨덴에서 발이묶여있는 자유노조 바르샤바지부공보부책임자 스테판·트르진스키는 『노동자들이 공장에 비축해둔무기를 폴란드軍人들에 대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그들은 소련軍과 대항해서 싸우게될상황에서 그무기들을 사용할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군사정부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철저한 통신관제를 하고 있어 계엄후 폴란드로부터 나오는 소식은 모두 불완전하다。 폴란드정부의 통신관제는 소련이 헝가리와 체코를 침공할당시의 그것보다도 더욱 철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流血사태방지최선

○…스테판·트르진스키는 『자유노조는 언젠가 軍隊가 정권을 장악하게 될 사태를 내다보고 노동자 1천명이상의 공장에서는 그같은 사태가 벌어질때 비상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組編成을 해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식량분배와 같은것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트르진스키는 『자유노조는 유혈사태를 피할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軍隊를 쏘지 않을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軍隊도 우리를 결코 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抵抗 더욱거세질듯

○…트르진스키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것 이라고 말하고 『지방의 노조지도자들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중입없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조와 정부간의 대립이 고조된다면 폴란드軍은 분열될것이라고 암시하고 黨이 양분된것처럼 軍도 둘로분열됐다고 말했다。 『군의 중간계급이 자유노조를 동정하고있는 반면 모스크바에서 교육을받은 고급장교들은소련이요구하는대로 추종할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소련의 개입위협설에 대해서는 『소련이 아프간에 개입한후 여태껏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듯이 폴란드에개입한다면 더욱큰 곤란을 겪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체코와 비슷한형편

○…지난68년 소련의 체코침공시 체포됐던 前체코공산당관리는 빈에서 『바웬사가 아마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에 소환됐을때의 체코지도자 두브체크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브체크시절 黨서기였던 즈데네크·엘리나르는 『이것을 어찌 협상이라고 할수있는가。 단지 공갈이라고 밖에 말할수 없으며 바웬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모습드러낸 蘇해병대 蘇해병대 병사들이 14일 폴란드의 스피노예스처 蘇해병대기지 부두에 모습을 보이고있다。 【말뫼15日AP電送=聯合】

勞組、軍政에상 非常組편성
"發砲令땐「命令불복종」하라"
對立高潮땐 軍部分裂조짐도

『軍은 우리에게 銃을 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역시 무기로 對抗하지 않을 것이다』

自由勞組

勞組、임시본부설치

○…바르샤바주재 외교관들은 노동자들에의해 점거된 바르샤바공장들중의 하나인 대형우르수스 트랙터공장으로 30여대의 장갑차가 이동했다고 전했다。

서방외교관들은 또 그다니스크조선소의 상황을 점검하기위해 이 장갑차부대가 다시 돌아갔다고 말했다。

미확인보도들은 노동자들이 자유노조의 발상지인 그다니스크조선소를 점거하고 있으며 이곳에 임시전국지휘소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바르샤바의 波장갑차 폴란드軍 장갑차가 14일 바르샤바市內를 경비하고있다。 【바르샤바15日UPI電送=聯合】

放送、소요擴散시인

○…바르샤바 방송은바르샤바의 몇몇공장을 포함전국 서너군데의 공장에서 직업적 선동집단들에의해 소요가 확산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라고 시인했다。

한 군사성명은 이런 항의 사태가 계속되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兵士거의가 勞組員

○…폴란드군부 지도자들은 군대의절반이상이 징집병이고 이들중 상당수가 자유노조회원이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군대를 신뢰할수있을는지 여부에 확신을갖고 있지않다고 영국의 데일리·텔리그라프紙가 보도했다。

텔리그라프紙는 폴란드군대가 폴란드국민이나 소련침략군에 대항하라는 지시를받았을때 어떻게 행동할것인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폴란드군대의 3분의1이상이 작년8월 자유노조탄생이후 군에 입대했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유노조회원들과 인척 관계로 얽혀 있어 예측하기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56년 포즈난의 식량폭동이래 폴란드군은 시위군중에 발포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지난70년 12월에도 당시육군참모총장이던 야루젤스키는 노동자에 발포하길 거부하고 특수경찰만을 노동자진압에 투입한바 있다。

텔리그라프紙는 야루젤스키가 위기의 순간에 군중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蘇기갑사단등 常駐

○…폴란드 국내에는 항상 2개 기갑사단의 소련병력이 상주하고있다。

동독에는 9개 탱크사단과 10개 기계화자동소총사단과 1개의 포병사단이 있다。

체코에는 2개의 탱크사단과 3개의 기계화자동소총사단이 있고 헝가리에는 2개의 탱크사단과 2개의 자동소총사단이 있다。

소련은 이밖에도 필요시 발트지방에 있는 3개탱크사단, 5개의 기계화자동소총사단, 2개 공정사단과 백러시아지방과 카르파티아지방의 주둔군도 비교적 힘안들이고 동원할수 있다。 【維=聯合】

"戒嚴統治 3個月넘으면 民主化끝장"
勞組、感情의노예로 전락
海外 波議員AP통신회견
蘇介入 방지효과만 남아

【제네바15日AP=聯合】 폴란드의 한국회의원은 15일 폴란드의 계엄통치가 3개월이상을 끌게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이나라의 民主化운동이 종식되는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과 세계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참석차 제네바를 방문중 계엄선포와 함께 귀국공로가 단절되는 바람에 귀국치 못하고있는 야누츠·스테파노비츠의원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폴란드당국으로서는 노동자들의 自律경영을 비롯한 제반 경제개혁계획들을 존속시키려면 계엄통치를 3개월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파노비츠의원은 폴란드계엄통치의 밝은측면은 단지 두가지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중 하나는 내란을 회피한것이고 다른하나는 소련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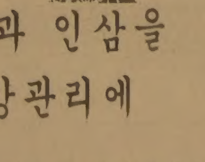
그는 자유노조지도자들이 『감정의 노예』가 됐었다고주장하면서 그들의 감정은 자유노조가 지난11일 폴란드인민들이 자유노조와 정부중 어느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방침을 결정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救國군사평의회의장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이 진실성을 가지고 폴란드의 개혁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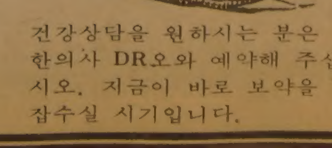
그는 계엄령을 민주화과정과 연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선포이후의 국내정세에 언급, 폴란드 국내여론이 『과열돼있다』고 말했으나 西方세계가 자유노조의 급진주의자들을 충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는 폴란드의 사회주의동맹들의 비난을 일축했다。

아 십 니 까?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한 국 일 보 533-236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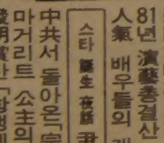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주 간 여 성
인기절찬 판매중!
12월20일자
주간女性
홍콩 스타 鄭美羅양 시집간다네
—21일 은퇴하고 28일 친구 오빠와 約婚
碧眼처녀가 「孤兒사랑」 20년
81년 演藝총결산 「映畵界」편
人氣 배우들의 개런티 明細
스타 讀者 夜話 尹福姬 편
中共서 돌아온「宗家 큰어른」
마거리트 公主의 쇼킹 傳記
發明賞탄「향생제 새合成法」
〈탤런트 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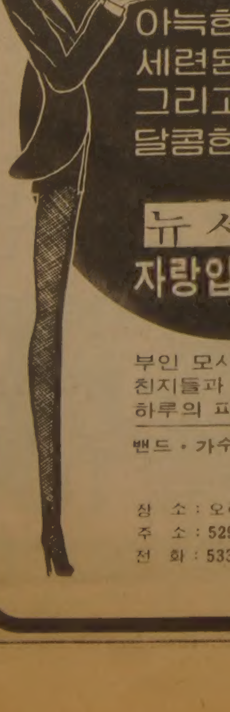


李美淑과 全永祿의 뜨거운 사이 眞相
50代 外國人 신랑과 40代 畵家 신부의 스위트 홈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431－4474, 439－4885(MR.김)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783－0683
536－5914(밤9시이후)Mrs.하

밤11시～오전7시(일～목요일)
도낫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 : 482－4088

● 도넛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 8시～오후4시(풀타임)
토.일 아침8시～오후4시(파트타임)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 531－2689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닥터 사무실에서 일할분 구함(오후에일할 파타임)
1982년1월부터 시작함.
책임성있고, 참고인 서야함.(이력서를 보내세요)
DR. C. NGAN
2437 FINCH AVE.W.WESTON.ONT. M9M 2E7

매매및 양도

고급코트를 만들수 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 수 있음.
☎ : 859－4366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이상적인 가족 비지네스(H-SALT 휘시 & 칩스, 휘트비)
그로스 : $2160/W 네트 : $930/W 아스킹 $60000
☎ : 683－7777(앤디·밴도라)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자동차 급매
75년 로얄·모나코 68,000마일 A-1콘디숀, 보증서 해줌.
☎ : 530－1491 $1295.00

제인 × 세파드
1000 sq. ＋완전히 FULL지하실
오후5시 전화요망
☎ : 449－0676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스토아 매니저나 후렌차이즈 구함(토론토지구)
☎ : 624－5817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1972년 DUSTER $350
☎ : 630－5289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40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 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여 행 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헌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6 (R) 248－6032 진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W. ☎ : 967－7121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9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예숙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케익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니폰·비데오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좌마구씨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낭비없는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에서!!

바다에서 플룻을 <4>

金梁錫 作

『제가 귀하는 사람같아 보여요?』
선뜻 다가선 그의 이마를 보며 내가 그의 화제에서 빗나가 있지 않음을 삭기시켰다.
『잘 알이었읍니다』
『사람이 아닌 한 기계를 사랑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건 잘답이 아닌 것 같군요. 그렇읍니까?』
『네, 그래요. 있으신가요?』
『있읍니다』
『알고 싶어요』
『렌즈』
『카메라?』
『바로 알아맞췄읍니다』
『무얼 찍으시나요?』
『무어든 찍읍니다. 갈도 찍고, 살도 찍고 나무도 찍고, 여자도 좋은 피사체가 됩니다』
『어떤 여자가 좋은 피사체가 될 수 있나요?』
『생명이 있는 여자면 누구나 아름다운 피사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잘답이 아닌 질문은 왜 하셨읍니까? 아까는 플룻이 있읍니까?』
음악 얘기가 한 마리의 문어처럼 가슴에 파닥이며 나의 음악 바다가 되어 가슴에 가득 들어찼다.
『플룻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플룻이요? 있읍니다. 고등학교때, 잘은 친구들에게 얄보이던 한 녀석이 있었읍니다. 성적도 나쁘고, 주먹도 못쓰고, 말도 잘 못하는 녀석이었지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악시간에 이 녀석이 플룻을 독주했어요. 나는 그 이후 그녀석을 좋은 선망했지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illegible] 플룻이 어지는 선율이 그때의 제겐 커다란 감동이었다고 기억되고 있읍니다』
그는 무구[illegible] 때며 말했다.
『아주 어[illegible] 플룻을 선물받았어[illegible]엔 [illegible] 좋도 모르[illegible] 만지기만 했지요. [illegible] 늘어서 [illegible]요.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나를 감싸는 고아원이 낯설어지고 어디 멀리 내 집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내 부모가 살고 있을 내 집의 형체가 뚜렷이 그려지기도 하고 부모의 얼굴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플룻은 신(神)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배고픔도 서러움도 그 소리로 위안이 되지요. 노상 그 서양 선교사 뒤를 쫓아 다니며 플룻 소리를 들었어요. 선교사는 귀국할 때 그것을 제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때부터 그것은 내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사랑에의 갈망을 부상으로 받아준 유일한 [illegible]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에의 사랑과 정열이 생활의 축이었어요』
『정열은 선(善)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플룻을 불 때는 언제나 깨끗한 정열로 충만했어요』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

12월9일~12월30 일까지
전품목40% 가격인하.
크리스마스 밍크 대매출.

"그이가 걸쳐준
밍크의 따스함 속에서
나만이 짜증스러웠던 날들,
울어버렸던 날들이
웃어버린날로 변했읍니다.

밍크 Sale

40%* OFF

밍크·라쿤•마스크랏트•비버•페르샨람•마모드
•여우털•각종모피제품류
•남자용쎄므반코트•런던 포그바바리30% OFF

크리스마스 !

유명백화점,일류모피상점을 찾아다녀 보시면 보실수록 모피제품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원피와 제품감별의 어려움, 디자인에서 제품과정에 이르는 불합리성, 일정제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등 보이지않는 모피제품만이 가지고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금번 대매출기간을 연장하여"최저가격에 대한 [illegible] 품질"을 가지고 자신있게 12월 말까지 대매출을 실시하오며, 모피전문가를 모시어 취향에맞는 디자인, 원하시는 싸이즈대로 주문제품을 완전 40% OFF해 드리겠사오니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캐나다 최상품의 밍크제품을 최저가격"으로 장만하시어 연로하신 어머님께,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피제품은 1년동안 무료보험, 무료보관하여 드림.

모피조끼(VEST)

가게 안에서 따뜻하게
간편하게 입을수 있는
모피조끼가 준비되었음.
완전제품
주문에 의한 제품.

빅 세븐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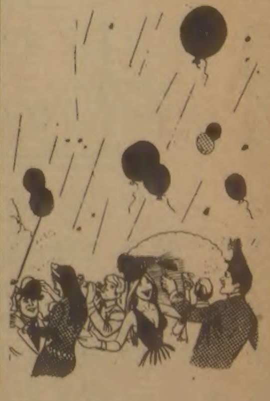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영업시간 : (월~토)아침10시~밤11시30분 (일요일)12월13일과20일뿐. 12시~밤9시

카나다최고품질의 "마제스틱"밍크원단을 사용한 12만달러 상당의제품확보.

M5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위니펙 재봉사 위문공연



장소 : 위니펙 AIRLINE 호텔

시일 : 1981년12월27일(일)하오7시

가수 : 박수영(민요가수)

악단 : 권순근외 3명

싱어롱지도 : 호세환(YMCA)

주최 : 한국일보사

후원 : 영리무역, 토론토한인회, 위니펙 한인회

협찬 : 대사관· 영사관 · KAL · 외환은행 · 신용조합 · 한인연합상사 · 신세계여행사 · 에코시가구점 · 고순복 한인회부회장 · KOTRA · 한국관 · 블로아 번영회 · 한기철 한인합창단장 · 한인장로교회 · 순복음교회 · 킴스카메라 · 최영식 라이온스클럽 미도파백화점 실업인협회